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
정리체계 개선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현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김 효 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희진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
정리체계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in Archival
Arrangement System of the Sisters of the Blessed
Korean Martyrs



2022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현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김 효 진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박희진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
정리체계 개선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in Archival
Arrangement System of the Sisters of the Blessed
Korean Martyrs

위 논문을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6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현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김 효 진

김효진의 기록관리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22년 6월 일

심사위원장 박지영(인)

심사위원 박진호(인)

심사위원 박희진(인)

국 문 초 록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 정리체계 개선 연구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문 헌 정 보 학 과
기 록 관 리 학 전 공
김 효 진

한국에 가톨릭이 전래 된지 2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한국 가톨릭교회는 16개의 교구와 다수의 수도회, 개별 신자들의 신앙 활동을 통해 많은 기록들을 생산, 보존해오고 있다. 그 중에서 수도회들의 기록은 봉헌의 삶과 함께 각 수도회의 성격을 나타내는 기록이므로, 수도회뿐만 아니라 교회 기록 자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1946년 개성에서 창설되었다. 2022년 올해로 창설된 지 76주년을 맞이하는 본 수녀회는 그 동안 많은 기록물을 생산, 보존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보존기록의 분류체계는 기록 분류의 중요한 요소인 맥락과 출처를 반영한 질서가 부여되어 있지 않아서 기록물을 정리와 검색은 물론, 이용자가 기록을 찾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기록물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의 특성 및 구조를 반영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용자가 기록물을 발견하고 맥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존기록 정리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보존기록의 기준 분류표는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주제, 기능, 출처, 기록매체 등이 혼합되어 있었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보존기록의 정리체계 개선을 위해 본 연구는 문헌연구와 보존기록의 관리와 분류 현황 조사, 이용자의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의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상향식과 하향식 접근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하향식 방법을 통해 가톨릭 기록물의 규정과 지침들을 조사하여 가톨릭 기록물의 특성과 분류기준, 즉 기능, 조직, 주제의 3개의 구분지를 도출하였다. 상향식 방법으로 현재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기록 대출 중빙서류인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 141건을 본 수도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6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내용 분석하였다.

내용분석 결과 키워드 총 1, 648개를 추출하였고, 분류 및 범주화를 통해 총 22개의 기록물군(Group), 68개의 기록물계열(Series)아래 기록물파일(File) 구조의 정리체계를 도출하였다. 제안한 정리체계를 기준의 분류표와 비교한 결과, 새로운 분류 체계의 도출, 정리를 위한 분류체계의 변경, 분류 수준(depth)의 변경, 중복 분류의 재분류로 수정, 보완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의 계층적이고 집합적인 질서를 반영할 수 있는 정리체계를 제안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제안한 정리체계는 기준의 분류체계에 수녀회 보존기록의 생산맥락과 구조를 반영함으로써, 이용자의 효율적인 검색과 활용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정리체계를 기반으로 보존기록의 기술(archival description)과 보존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검색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전거제어(authority control)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보존기록 정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로, 보존기록 기술과 전거제어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의 검색 가이드 설계와 보존기록의 효율적인 정리와 이용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종교기록, 보존기록, 수도회, 정리체계, 내용분석, 검색 가이드,
기록 분류



목 차

I. 서 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1.3 선행연구	5
II. 이론적 배경	10
2.1 보존기록 정리와 분류	10
2.1.1 보존기록 정리	10
2.1.2 분류체계와 검색 가이드	11
2.2 가톨릭교회 기록의 특성	12
2.2.1 가톨릭교회 기록의 개념	12
2.2.2 가톨릭교회 기록의 특성	14
2.3 가톨릭교회의 기록관리 체계	15
2.3.1 한국 가톨릭교회의 기록관리 체계	15
2.3.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서고 운영 규정	17
2.3.3 한국천주교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침	21
2.3.4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	25
III.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의 특성과 관리 현황	32
3.1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조직과 기록물	32
3.2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의 특성 및 관리 현황	37
3.2.1 보존기록의 유형	37
3.2.2 현 분류표 구성	39

3.3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의 이용 현황	41
3.3.1 보존기록의 이용 대출 현황	41
3.3.2 보존기록의 이용 현황	42
 IV. 자료 수집과 분석	45
4.1 자료수집과 분석	45
4.1.1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 내용분석과 연구 참여자	45
4.1.2 1차 범주화	47
4.1.3 2차 범주화	52
4.2 기존분류표와 매핑과 시사점	63
 V. 정리체계 개선안	69
5.1 정리를 위한 분류체계 개선안	69
5.2 개선 방안	83
 VI. 결 론	85
참 고 문 헌	88
부 록	92
ABSTRACT	99

표 목 차

[표 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서고 운영 규정>의 개정 사항	18
[표 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서고 운영 규정 1절 8조 기록물 분류>	19
[표 3] <한국천주교 문화유산 보존관리지침의 분류기준>	23
[표 4] <한국천주교 문화유산 보존관리지침>의 가톨릭교회유물 유형과 범위	24
[표 5]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조사> 환경 분석	26
[표 6]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사료의 유형	28
[표 7]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 연구 방법	28
[표 8]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 기초 목록	29
[표 9]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 분류별 세부사항	29
[표 10]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 사료등록 시스템 목록	30
[표 11] 가톨릭교회 기록관리 체계 현황	31
[표 12]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 현황(2021년 기준)	39
[표 13]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현 분류표(2021년 기준)	40
[표 14]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연도별 보존기록 이용현황	42
[표 15] 연구 참여자 특성	46
[표 16] 연도별 신청서, 기록물 요구 및 키워드 건수	47
[표 17] 1차 범주화 결과	48
[표 18] 2차 범주화 결과	55
[표 19] 기존 분류표와 비교·분석	67
[표 20]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 정리체계 개선안	70

그 림 목 차

[그림 1] 연구 절차	4
[그림 2]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조직도	33
[그림 3]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2019년 기준)	41
[그림 4] 2019년~2021년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 목록	47



I.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 가톨릭교회는 1784년 처음으로 전례 되어 23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 오면서, 16개의 교구와 다수의 수도회, 개별 신자들의 신앙 활동을 통해서 많은 기록물들이 생산되고, 보존되고 있다.

교회의 기록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기억의 장”(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p.144)이며, 이를 통해 미래를 설계하는 예언의 역할을 한다. 수도회들도 초세기부터 자신들의 기록물 보존에 특별히 심혈을 기울였으며, 수도회의 기록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Sequela Christi) 봉헌생활이 표현되어 왔던 역사적 시기의 영적 운동의 전개를 알게 하는 기록이므로(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p.150) 수도회뿐만 아니라 교회 기록 자산에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수도회의 기록물은 그 수도회의 기도와 삶이 반영된 것이므로, 수도회의 존재론적 의미로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가톨릭교회의 기록물은 교회사적 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는 그 시대와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를 반영하는 중요한 민간기록물로서 관리되고 보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권미정, 2015).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1946년 4월 21일 개성에서 창설되었다. 2022년 올해로 창설된 지 76주년을 맞는 수녀회는 그 동안 많은 기록물을 생산, 보존하고 있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기록물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수녀회 창설 초기부터 기록물의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러한 노력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총원에는 자료실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자료실은 1986년 처음 개설되었으며, 자료실, 전산실, 시청각실, 시청각 자료실 등 부서의 통합, 분리의 과정을 겪으며 현재의 자료실이 되었다. 자료실은 본회 창설자와 회원이 남긴 종이 기록물, 사진, 영상, 유품 등을 수집, 정리, 보존하고, 본 회원이 전시, 연구 지원, 교육 사업,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물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창설 초기의 기록물들과 교회와 수도회, 각 수도자들의 개별적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으며, 다른 기관에서의 기록 이관 및 수집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집 활동에 비해서,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는 아직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자료실은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집, 이관된 기록물을 일관된 분류체계 없이 주제, 형태, 시대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 정리하고 있다. 보존 기록의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물의 위치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기존의 분류체계는 기록의 출처와 맥락을 반영하고 있지 않으며, 지금까지 아날로그 기록물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본 디지털(born digital) 기록물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관련된 기록을 통합적으로 검색, 관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수녀회 보존기록의 체계적인 정리를 통해 기록의 맥락을 확인하고 원질서를 파악함으로써 이용자가 기록과 생산자, 관련된 활동 등의 관계를 이해하고 검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의 특성 및 구조를 반영하여 기록물의 체계적인 정리와 이용자의 기록 검색을 지원할 수 있는 정리체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이용자의 기록 검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리체계를 개선하는 데 있다. 연구의 범위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보존기록으로 제한한다.

본 연구는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가톨릭교회 기록의 특성을 파악하고 정리체계를 위한 기록 분류 기준을 도출한다. 한국 가톨릭 기록물 관련 법규, 지침 및 규정인 *한국천주교에서 작성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서고 운영 규정>(2019)* *<한국천주교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침>(2009)*과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2017)*을 통해서 가톨릭교회의 기록물의 특성과 기록 분류 기준을 도출을

조사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 관리 현황과 수녀회의 업무 조직을 조사, 분석하여 기록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보존기록의 출처, 구조(집합체), 형태, 내용, 다른 기록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이용자 기록 검색과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자료대출 허가 신청서’의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3년간(2019년~2021년)의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를 본 수도회의 회원 6명이 참여하여 검색키워드를 부여하도록 하고, 키워드 분석을 통해 보존기록의 핵심개념과 분류기준을 도출하였다.

넷째, 문헌연구(하향식)와 내용분석(상향식)의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된 정리체계와 기존 분류표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 분류표와 도출된 정리체계와의 구조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찾아내어 이를 토대로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정리체계의 개선안을 제시한다.

연구절차는 <그림 1>과 같다.

1) 문헌연구

가톨릭교회 기록물의 규정과 지침 조사

: 가톨릭교회 기록물의 특성을 파악하여 주요 분류기준 도출



2) 수녀회 보존기록 현황과 수녀회 업무조직 조사

보존기록의 특성과 구조 파악 / 본 수녀회의 업무조직 조사, 분석

: 보존기록의 출처, 구조(집합체), 형태, 내용, 다른 기록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



3) 이용자 요구분석

이용자의 기록물의 검색과 활용 방법 조사

: 6명의 연구 참여자의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를 내용 분석



4) 정리체계 개선안 설계

- 1) 상향식(Bottom-up) : 소장 기록물 관리현황과 신청서 내용분석을 통해 조직, 주제중심의 분류기준 마련
- 2) 하향식(Top-down) : 가톨릭교회 기록물 관련규정 및 지침과 수녀회 조직 업무 분석을 통해 주제, 기능중심의 분류기준 마련
- 3) 기존 분류표와 매핑, 정리를 위한 분류체계 개선안 제시

〈그림 1〉 연구 절차

1.3 선행연구

본 연구는 공공기록이 아닌, 민간기록의 한 종류인 종교기록의 보존기록의 정리체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는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는 크게 민간 기록물에서의 보존기록과 매뉴스크립트 정리에 관한 연구와 종교기록물 및 종교기록물의 정리와 기술에 관한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

1.3.1 민간기록물에서의 보존기록과 매뉴스크립트 정리에 관한 연구

윤혜선(2019)의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기록물의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는 기록이 관리되지 않은 채 해체되었던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의 생산 기록을 재분류하여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접근과 활용이 용이한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집합적 기록물군 개념을 적용하여 유형분석, 생산시기, 주제별 분류 등의 방법을 통하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의 분류표를 도출하였다.

김유선(2018)은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의 소장 기록물 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효과적 활용을 위한 분류 체계 개발을 위하여 기능분석을 수행하고, 유형별 특성, 생산시기별 특성을 고려하였다. 이는 업무기능, 업무활동, 처리행위 형태로 이어지는 기능분류와 함께 유형분류, 시대분류로 통합하였다. 연구자는 이를 통하여 다중분류체계로 소장기록물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분류표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함평유족회 산하의 읍면지회유족회의 활동 내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 유족회 소장 기록에 기록학적 접근법을 이용한 최초의 연구이자, 유족회 기록물 연구를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의의를 가진다.

정진임(2007)은 「매뉴스크립트 분류체계 개발방안 연구」에서 민간영역의 기록물의 맥락을 잘 나타내기 위한 매뉴스크립트 분류체계 개발 방법을 제시하였다. 그 일례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소장 한국 YMCA전국연맹 컬렉션을 주제분류와 유형분류 방법을 접목한 기능분류체계로 체계화하였다. 기능분류 방법으로 AS 5090과 DIRKS(Designing and implementing

recordkeeping systems) 방법론을 참고하였다. 그러나 기록물이 실제 관리되고 있는 시스템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이론적인 내용만으로 전개하였고, 제시한 각각의 분류를 통합한 하나의 분류체계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이에 실제 기록물이 현재 관리 시스템과 접목했을 때 잘 적용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박정옥, 이명규(2013)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에서 기관별로 분산되어 관리하고 있는 5.18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 할 수 있는 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매뉴스크립트 성격을 가진 기록물을 분류하는 방법으로 셀렌버그의 원질서 원칙과 출처의 원칙을 유지하면서 주제분류와 형태분류까지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생산 출처별(1차 분류), 생산시기별(2차 분류), 주제별(3차 분류)과 마지막으로 형태별 분류를 진행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류표(안)을 마련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기록물의 서가상의 정리까지는 다루지 못한 한계점을 가진다.

나옥빈(2020)의 「H대학교 설립자 기록물의 분류와 활용방안」에서는 학교사 재정리 목적을 가지고 사립대학교인 H대학교 설립자 기록물을 사례로 제시하였다. 개인기록 및 매뉴스트립의 기록물 정리사례이며, 기록물의 분류 원칙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록물의 주제별 정리와 매체별 분류를 수행하고, 출처를 분석하면서 출처와 매체별 정리를 수행하였다. 정리된 기록물은 분류와 이용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진 DB를 구축하고, 기록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리를 진행하였다. 설립자 기록물(개인기록)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상의 ‘민간기록물에서의 보존기록과 매뉴스크립트 정리에 관한 연구’를 종합해 보면 모든 논문에서 기록 관리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기록물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모든 기록물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류체계는 없으므로, 기록물군의 성격에 맞추어서 정리를 위한 분류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러한 기록물의 경우 계층적이고 집합적인 목록기술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분류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논하고 있다. 다양한 성격과 출처를 가진 매뉴스크립트 기록물은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것

에 동의하고 있다. 매뉴스크립트 기록물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로는 집합적 기록물군 개념의 연구방법과 기능분류를 기반으로 주제분류 및 유형분류를 통합한 다중분류방법을 사용한 연구방법으로 구분되었다.

업무기능에 기초를 둔 분류체계 개발 연구들은 출처와 원질서 원칙을 준수하며, 기능분류를 기반으로 하되, 기록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주제, 시대, 형태 등으로 분류하는 다중분류체계가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3.2 종교기록물 및 종교기록물의 정리와 기술에 관한 연구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는 1987년 가톨릭교회 기록물의 관리 및 정리에 대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교회 문서 정리’란 주제로 이루어진 세미나에서 조광(1987)은 「현대 교회 문서 정리와 역사 의식」이란 주제로 교회문서의 특징으로 일반 문서들이 가지고 있는 이상의 두 가지 기능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이는 신앙공동체의 영적, 물적 이익과 관련된 것이므로, 신앙공동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중히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서술했다. 또한 교회기록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발전해 왔는지 살펴보았고, 특히 독일 뮌스터 교구의 문서고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서나 문서고에 대한 관심이 약했음을 파악하고, 교구 문서고 설치를 제안했다.

김희중 신부(1987)는 「이탈리아 교회 문서고에 관하여-밀라노 교구청 문서고-라는 주제로 이탈리아 밀라노 교구청 문서고의 운영방법에 대해 서술하면서, 교구청의 문서 분류 시안을 제시하였다. 이 세미나는 가톨릭교회 내에서 가톨릭 기록물에 관하여 이루어진 최초의 논의라는 의의를 가진다.

하종희(2001)의 「천주교 대전교구의 기록관리-개선안 및 기록물 정리 방안-」은 천주교 대전교구라는 종교단체의 기록을 기록학 이론을 토대로 한 최초의 연구이다. 대전교구의 기록물 현황과 보존 및 활용과 교회사 연구의 기반이 되는 기록물의 정리 및 연구가 미흡함을 지적하며, 기록관리의 개선 및 정리방안을 제시하였다.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인식을 재고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유택(2010)의 「개신교 교회 기록물관리의 개선방안 연구」는 국내 교회 중,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가 부족하고, 기록관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도 전시관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논하며, 서울 정동제일교회, 전주 서문교회, 서울 영락교회, 서울 새문안교회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교회기록물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단계별 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교회의 성격에 맞는 분류체계 구축 및 기록물 평가를 통한 처리 일정표를 구현함으로써 기록물의 유실을 방지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기록물의 출처와 원질서의 원칙을 준수하여 기록물을 분류하고 기록을 생산 맥락과 기록을 판별하고 분석하여 기술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지훈(2017)의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박물자료 관리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대구대교구청 박물자료 관리 현황을 파악하여 도출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구대교구청 사료실에는 박물자료의 유형 분류, 등록을 관리하는 단계와 기술 요소가 부재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제안점으로 박물자료에 대한 유형 분류와 등록 작업의 진행 방법, 체계적 기술 방안의 개발, 박물자료의 유형별, 부피별 보존, 정리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경민정(2018)의 「한국 천주교 역사기록물의 정리와 기술에 관한 연구」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기록 관리에 관한 연구 중에서 역사기록물로 대상을 한정하여 관련 개념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이를 통합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해 정리 방안과 기술요소를 제안하였으나, 구체적인 정리계층을 제안하지 못한 부족함이 있다.

이보나(2020)의 「한국가톨릭교회 역사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에 관한 연구」는 한국 가톨릭교회가 보존하고 있는 역사기록물의 가치를 살펴보고, 국내 가톨릭 기관(한국교회사연구소, 절두산 순교성지)과 국외 가톨릭 기관(바티칸 인류복음화성 고문서고)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수집, 보존, 정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연구자들만 이용이 가능했다. 또한 각 기관이 어떠한 역사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지 다른 기관 및 일반인에게 목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발견하였다. 이에 통합적으로 검색과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기관별, 시대별, 유형별 분류를 제시하고 있다.

김성태(2018)의 「한국천주교 자료의 분류체계 방안 연구」에서는 한국 천주교 자료의 특수한 성격에 부합하는 분류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바탕으로 시기별, 주제별, 내용별, 유형별로 분류하여 검토한 후 자료 전체를 통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유형별 분류체계를 가장 합리적인 대안으로 선정하고, 분류체계 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료카드의 시안을 제안하였다.

설문원(2012)의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에서는 기록학의 세부 분야로써 적용하는 기록분류론과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의 원칙을 기본으로 보존기록의 정리에 대한 연구이다. 분류와는 다르게 정리를 사용하여 기록 분류 개념을 정리하였고, 이용 방안 및 지금까지의 연구동향 등을 기술하였다.

한이랑 외(2016)의 「카톨릭 역사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에서는 호남교회사 연구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작업을 통해 기록물의 분류 및 오픈소스 기록관리시스템인 AtoM을 활용한 아카이브 구현을 수행하였다. 이는 지역 문화 콘텐츠의 대상으로 교회의 지역 역사기록물을 연구했다는 데 차별성을 가진다.

이상의 ‘종교기록물 및 종교기록물의 정리와 기술에 관한 연구’의 논문들을 종합해 보면, 가톨릭 기록물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기록물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분류체계 역시 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각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개발되어 사용하거나, 아예 분류체계가 없는 곳도 있었다. 종교기록물들은 정기적으로 생산되지 않으며, 생산 및 수집의 출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집합적 기록물군 개념을 적용하는 연구로, 유형별, 주제별, 시대별 분류를 주로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만들어진 규정 및 지침인 <한국천주교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침>에서의 분류의 기준과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에서 제시하는 유형별 분류 기준을 참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2.1 보존기록 정리와 분류

2.1.1 보존기록 정리

보존기록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존재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공적 또는 사적으로 생산, 입수한 기록으로서, 직접적인 목적 이상으로 지속적 가치가 있거나 생산자의 기능이나 책임을 입증해주는데 있어 의미를 지닌 자료이며, 보존기록은 오래되었거나 역사적인 문서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한국기록학회, 2008). 보존기록 즉 아카이브즈(archives)의 특징은 다양한 출처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며, Miller(2002)는 “아카이브즈와 매뉴스크립트는 물리적 형태에 관계 없이, 조직이나 개인에 의해 일정 기간의 활동 과정에서 생산, 축적되었고, 이후의 어떤 활용 목적을 위해 영구적으로 저장되는 기록물”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Schellenberg는 정리를 분류(classification)의 개념과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다. 현용기록의 조직화를 위해서는 ‘분류’를, 영구보존을 위해 이관된 보존기록(archives)에 사후적으로 질서를 부여하는 과정에서는 ‘정리’를 사용하고 있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8). 정리는 보존기록의 질서를 잡는 전반적인 작업을 일컫기도 한다. 정리는 “보존기록을 출처의 원칙 등에 맞추어 기록을 계층별로 조직화하는 지적이고 물리적인 처리 과정”(한국기록관리학회, 2018)을 말한다. 즉, 보존기록은 다양한 출처와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생산 당시의 순서나 질서가 흐트러져있기 때문에 기록물 관리 관점에서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존기록 정리의 기본적인 원칙은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 존중의 원칙이다. 먼저 출처의 원칙은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형성 기관)에 따라 정리하고, 분류하는 원칙으로, 18세기 말 프랑스에서 형성된 것으로, 동일한 기록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기록은 다른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것과 뒤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진렬 외, 2010). 원질서 존중의 원칙은 19세기 말 독일의 등

록소 제도에서 기원한 것으로 모든 기록물은 생산 및 수집기관에서 형성된 기록물 고유의 질서를 유지해야 함을 뜻한다. 이는 어떤 활동과 기능이 수행되는 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며, 출처에 따라 조직된 체계 내에서 질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활동이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었는가를 기록을 통해 담아내야함을 의미한다(이진렬 외, 2010).

계층적 관리는 이론적인 원칙이라기보다는, “기록물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의 원칙을 이행하는 방법”이며, 한 기관의 기록물은 활동 또는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연속적이며 물리적으로 세분되고, 지적으로 기술될 수 있으며(기록물 군/매뉴스크립트 컬렉션-시리즈-파일단위-개별문서), 개별적 파일 단위를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큰 집합에 대한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Miller, 2002, p.47-48).

보존기록에서 정리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존기록의 이해와 검색을 지원한다. 기록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맥락의 보존이 매우 중요하다. 정리체계를 통해 기록간의 계층적 관계와 해당 업무 및 기능과의 관계도 알 수 있다.

둘째, 기록 이용뿐 아니라 보존기록의 공개관리, 재평가, 처분 등의 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다. 즉 보존기록의 정리도 관리의 여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정리의 결과는 기술의 단위(unit of description)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기록은 계층과 유기적 관계에 따라 기술되기 위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 정리를 통해 계층화와 범주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리의 결과로 형성되는 보존기록의 계층은 보통 기록군(records group), 기록하위군(records subgroup), 기록시리즈(records series), 기록철(records file), 기록건(item) 등으로 구성된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8, 240~241).

2.1.2 보존기록 정리와 검색가이드

기록학 용어사전에서 검색가이드는 “하나 혹은 다수의 보존 기록관이 소장한 기록의 일부나 전부를 총괄적으로 기술한 검색 도구로서, 대체로 기록군

이나 기록 시리즈 정도의 계층으로 분류, 기술된다”라고 정의한다.

보존기록의 정리는 앞에서 논의했던 것처럼 기록물을 정리하고, 검색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기록을 검색하는 이용자를 돋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설문원(2015)은 이용자들이 보존기록을 이용하고자 할 때, 기록물의 제목을 정확히 알고 검색하는 경우는 드물며, 이용 목적은 분명한데, 정확한 접근방법을 모르는 이용자들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한다. 이는 이용자들이 기록을 검색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은 “기록이 이용자에게 발견될 수 있도록(findable)”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이용자들이 기록을 잘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검색가이드이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보존기록은 아카이브즈이며, 또한 매뉴스크립트의 성격을 가진 기록들이다. 이들 기록들은 다양한 출처와 다양한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기록들을 효율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검색 가이드가 필요하다. 검색 가이드는 검색도구만으로는 이용자들이 기록물에 대해 정확한 내용과 맥락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기록물을 발견하고 원하는 기록물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보존기록의 정리는 기록물의 처분이나 보존 기간의 설정이 아닌, 분류와 정리의 개념으로, 또한 이용자가 기록물을 쉽게 ‘발견(findable)’하고, 기록의 의미와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검색가이드로써 역할을 수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 보고자 한다.

2.2 가톨릭교회 기록의 개념과 특성

2.2.1 가톨릭교회 기록의 개념

가톨릭교회 기록이란 하느님의 오랜 역사(歷史)가 세상 속 인간과의 관계 하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산물이다(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영성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느님과 자기 자신, 이웃들,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자기초월적인 사랑으로 개방되는 한 사람 또는 단체의 믿음이 지난 살아 있는 표현”

이다(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2006, 9. p.6257). 즉 가톨릭교회 기록은 이러한 영성을 바탕으로 가톨릭 기관들이 수행한 활동과 가톨릭 신자들의 믿음과 교회 역사에 관한 기록이다. 이는 유일하고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공동체의 기록이며, 영적 문화적 발전과 사회 교육 과정에서 신앙인의 믿으에 대한 증거가 될 뿐만 아니라, 과거의 신앙인들과 성인(聖人)과의 통교(通交)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와 인류가 삶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면서 생산한 사회의 귀중한 상징이며 보물이다(김선미 2003).

한국천주교주교회의¹⁾에서 제정한 〈교구 기록물 관리 규정〉 제2조에서는 ‘가톨릭교회 기록’을 매체 및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가톨릭교회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 또는 접수한 보존 가치가 있는 역사기록물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교회기록물은 가톨릭교회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입수한 각종 형태의 기록 자료이며,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에 대한 믿음과 교회의 역사가 담겨 있는 기록(방소운, 2012)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종교기록은 신앙의 일부이며, 종교의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방법이기도 한다.

가톨릭교회 기록은 그리스도교 신앙공동체의 경험을 축적하고, 이 축적된 경험을 통하여 하느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데에 역사적 교훈을 줄 수 있다 (조광, 1987). 또한 허은정(2007)은 가톨릭교회 기록은 교회의 역사와 함께 존재해 온 기록물로서, 과거 신앙 활동을 통한 기록물과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기록물을 입수하고, 그것을 현재의 신앙공동체에 비추어 삶과 영혼의 유용한 재료가 되며, 미래의 새로운 계획을 구상하고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기술하였다. 다시 말하면 가톨릭교회 기록은 교회론적 기반 위에 신학적, 영성적, 사목적 차원을 강조하며, 역사, 종교학, 민속학 등 다양한 학문에서 중요한 기록로 인정받고 있다.

1)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한국 교회 전체의 공동선 증진을 위하여 사목 임무를 공동으로 조정하여 수행하도록 사도좌가 법인으로 설립한 상설기관으로 한국 주교들의 회합이다. (교회법 제447조, 449조 참조). 박해시대인 1875년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제1차 주교회의가 열렸으며, 1931년 9월 13-25일에 열린 제2차 회의 이후에는 거의 해마다 주교회의가 개최되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https://cbck.or.kr/Cbck>).

-교회법 455조 1항을 통하여 “주교회의는 보편법이 규정하였거나 또는 사도좌의 특별 위임이 자의로나 그 주교회의의 청원에 응하여 정한 안건들에서만 일반 교령들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2.2.2 가톨릭교회 기록의 특성

가톨릭교회 기록의 특성을 크게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가톨릭 신앙 공동체의 믿음을 반영한다. 이는 신앙 공동체의 영성이 기록된(documentation) 기록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행위의 본질로서 믿음을 반영하는 기록이다.

둘째, 가톨릭교회 기록은 가톨릭교회가 수행한 행위의 결과물로써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신자들 및 관련 기관들의 활동을 반영한다.

셋째, 공동체를 통해 운영되는 가톨릭교회는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을 가장 존중한다. 따라서 “교회 기록을 관리하는데 있어 일반 기록에 비해 성직자 기록, 일반 신자 기록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한국국가기록연 구원, 2004. p.16).

넷째, 가톨릭교회 기록의 유형은 종이기록물, 박물류, 시청각류, 전자기록물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교회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 행정과 함께, 종교 행사 및 각 부서의 내부 활동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생산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동일 기록물이 반복적으로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예배 및 교회의 전체적인 행사와 각 부서의 연중행사 등은 일정한 내용을 가지며 주기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성격이 강하므로, 매년 동일한 표제를 가지고 고정적으로 생산되는 기록의 종류가 많다(허은정, 2007).

여섯째, 가톨릭교회 기록은 단순히 종교 활동에 대한 결과물이 아닌 교회가 속해 있는 지역 문화와 역사, 신자들의 활동과 문화가 담겨 있는 역사기록물이자 민간기록물이다. 교회 기록물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지역 사회 발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기록이다. 이는 신자들의 영적 관심을 반영하며, 일반적인 역사기록물에서 보여줄 수 없는 부분을 나타내 줌으로서 지역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준다(김선미 2003). 또한 공공기관이 수행하지 못한 부분들(복지, 교육, 의료 등)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 오고 있다.

2.3 가톨릭교회의 기록관리 체계

2.3.1 한국 가톨릭교회의 기록관리 체계

20세기에 이르러 가톨릭교회에서는 교회 기록물의 중요성을 깨닫고, 바티칸 아카이브즈²⁾에 대한 개방 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역대 교황들 또한 문서 관리에 대한 언급과 정책을 수행하였다. 특히 교황 요한 바오로 6세(Paulus VI, 1963-1978)는 “기록과 문서, 문서고를 존중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교회 공동체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발자취’의 단계의 역사를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 주는 것을 의미 합니다”(교회의 가르침 5호, 1997).라고 말씀하셨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Johannes Paulus II, 1978-2005)는 1981년 바티칸 아카이브즈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하시면서 “교회의 문서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왕국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다... 가장 소박한 것부터 가장 중요한 기록까지 모든 기록들을 가치 있고 적절하게 보존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하나의 임무이다.”라고 언급하셨다. 이에 교황청은 1982년 5월에 기록 관리는 조직적이고, 일치된 노력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깨닫고 교황청 문화재 위원회³⁾를 설립하였고, 교회 기록물을 비롯한 유물, 도서들에 대한 전문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다음의 회람을 반포하였다.

1997년 2월 2일에 <교회 문서고의 사목적 기능(The Pastoral Function Of

2) 바티칸 아카이브즈의 공식 명칭은 ‘바티칸 비밀 아카이브즈(Archivio Segreto Vaticano, Vatican Secret Archives)’이다.

3) 문화평의회는 요한 바오로 2세가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2년 5월 20일 국무원장 카사롤리 추기경에게 보낸 친서(Fin dall'inizio)를 통하여 ‘문화위원회’ 설립한다. 이후 1988년 6월 28일 자의교서(착한목자(Pastor bonus))를 통해 문화위원회를 ‘교회 문화유산(문화재)위원회(Pontificia Commissione per i Beni Culturali della Chiesa)’로 개편한다. 교황청 개편 이후 자의교서(Inde aPontificatus, 1993.3.25)를 통해 ‘비신자사 무국’ (바오로 6세가 1965년 설립)의 업무를 이어받은 비신자대화평의회를 문화평의회로 통합되었다. 교황청 문화평의회는 교황청과 인류 문화 영역 사이의 관계를 증진하여 여러 민족의 문화가 복음의 가치를 깨닫도록 하는 임무 담당하며, 주로 교회의 다양한 문화 교회의 다양한 문화 기관을 지원하고, UNESCO를 비롯한 국제 문화 기구들과의 협력 증진에 힘쓴다. (외교부, 2018.『교황청 개황』 p.31)

Church Archives)〉과 1999년 12월 8일 <교회 문화재의 목록과 도록: 필요하고도 시급한 과제(Inventory and Catalogue of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Church: a Necessary and Urgent Task)〉, 2001년 8월 15일 <교회 박물관의 사목적 기능(The Pastoral Function of Ecclesiastical Museums)〉의 회람을 반포하면서 교회 내 도서관, 문서고, 박물관의 필요성을 비롯하여 가톨릭 교인의 막대한 예술적, 역사적, 종교적 유산에 대한 관심과 사목적, 역사적 관점에서 관리를 촉구하였다(김선미, 2003).

교황청 문화재위원회는 1984년 한국천주교주교회에 서한을 보내어 “각국의 문화의 증진과 각국 주교단이 문화사목에 관한 의견 교환 등을 통한 복음화의 실현을 위하여 주교회의 위원 중에서 책임 주교 1명을 선정하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제1대 위원장으로 김창렬 주교를 선출하며 1984년 3월 한국 가톨릭교회 주교회의 문화위원회를 창립하였다. 위원회의 목적은 “인간의 문화와 그 활동을 복음의 빛으로 조명하고 쇄신하여 인간 성 향상을 위한 참된 문화의 도덕성을 증진”시키고자 함이다. “지역 교회인 한국 천주교회는 문화 환경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연구, 선도, 성취, 성과 등을 교황청 문화평의회에 제공함으로써 보편 교회의 선익을 도모”하기로 되어 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문화예술위원회, n.d.). ‘문화 위원회’는 2017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에서 ‘문화위원회’를 ‘문화예술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다.

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의 문화와 활동에 관한 기록들을 교황청 문화평의회에 제공하고, 문화유산을 보존 관리하는 데 중요한 규칙과 지침을 제정하고, 각 교구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과, 보존관리 전문가의 도움과 자문을 받는다. 교회를 대표하여 문화재청이나 국립 박물관 등과 같은 문화유산 관련 당국과 협조 관계를 지속한다.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매뉴얼 작성과 관리 지침 제정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주요한 업무로서, 교구의 지침에 따라 개별 문화 유산의 보존과 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유지와 변경에 대해 기타 주의 사항을 기술하며, 보편적인 관리 지침을 담는다. 보존 매뉴얼은 항구적으로 유용한 기록이지만, 5년 단위로 조사하여 개정과 보완을 위해 재검토된다(주교회의 문화위원회, 2009, p.40). 한국 교회의 사료 발굴 정리를 위해 “주교회의 사

무처 한국교회사 사료실 자료 열람 준칙”을 승인하였으며, 본당사 편찬을 위한 지침으로 2002년에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본당사 편찬 지침」을 발간하였다. 또한 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천주교회사 자료 수집과 수집된 자료의 판독 작업, 정리된 자료를 각 교구 문서고 및 교회사 연구소로 출판·배포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문화예술위원회, n.d.).

2.3.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서고 운영 규정

문화예술위원회는 1997년 10월 교황청 문화재 위원회 회람인 〈교회문서고의 사목적 기능〉과 문서고 관련 교회법을 검토하여 〈교구 문서고 운영 준칙〉을 승인하였다(김선미, 2003).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서고 운영 규정〉은 1997년 〈교구 문서고 운영 준칙〉의 반포를 시작으로, 2005년 〈주교회의 문서고 운영 규정〉으로 1차 개정, 2019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서고 운영 규정〉으로 2차 개정 작업이 있었다. 2005년 개정에서는 1절 3조 (목적)에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활용하기 쉽게 한다는 조항에서 정리를 관리로 변경하였고, 교구장 주교를 주교회의로 변경하였다. 2절 6조의 자료의 종류는 자료의 분류로, 2019년에는 기록물의 분류로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세부 사항 또한 변화가 있었다.

각 호를 비교해 보면, 운영준칙에서 교구청, 주교좌, 성당 등의 기록문서들과 세례, 견진 등의 교직에 관한 문서와 대장, 그리고 사목방문, 수도 서원에 관한 자료 등으로 1-2호에 걸쳐서 자세하게 구분해 놓았다면, 1차와 2차 개정에서는 문서와 문헌으로, 그리고 주교회의에서 생산 접수한 모든 기록물로 범위를 한정지었다. 그 다음으로 교회 재산에 관한 항목이고, 비밀자료는 5항에서 3항으로 위치가 변경되었다. 또한 역사적 자료는 1차 개정 때는 포함이 되지 않았었으며, 2차 개정 때 4항으로 정해졌다. 또한 1차 개정 때 중앙협의회 발행도서가 추가 되었으며, 2차 개정 때는 중앙협의회 발행 간행물로 규정하고 있다. 변경사항은 다음의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97 (재정)	2005 (1차 개정)	2019 (2차 개정)
2절 6조 자료의 종류	2절 7조 자료의 분류	2절 8조 기록물 분류
① 교구청, 주교좌.. 성당들의 기록문서들	① 문서(회의록 포함)와 문헌	① 주교회의에서 생산 접수 된 모든 기록물
② 사목방문, 각족 보고서, 선교사 파견 등	② 교회 재산관리 기록 (도면포함)	② 교회 재산관리 기록(박물 류 포함)
③ 교회 재산 관리에 관한 기록	③ 비밀 자료	③ 비밀 자료
④ 역사적 자료	④ 교회 단체의 활동 기록 자료	④ 교회 사료
⑤ 비밀자료	⑤ 위 1-4호까지의 시청각 및 전산 자료	⑤ 교회 단체의 활동기록
⑥ 교회 내 단체들, 선교 등 활동자료	⑥ 중앙협의회 발행도서	⑥ 중앙협의회 발행 간행물
⑦ 위 1-6호 관련 시청각 전산 자료		⑦ 위 1-6호까지의 시청각 기록물 및 전자기록물

〈표 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서고 운영 규정〉 개정 사항

2019년 개정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1997년 〈교구 문서고 운영 준칙〉과 2005년 〈주교회의 문서고 운영 규정〉에서는 모든 내용이 “자료”로 쓰여 있었다면, 2019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서고 운영 규정〉에서는 “자료”가 모두 “기록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2019년 개정에서 추가된 내용을 살펴보면, 1절 4조(정의) 세부항목인 ③항부터 ⑧항까지의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다음과 같다. 기록물 관리, 분류체계, 단위업무, 기록물 철, 사료관리 시스템, 보존 기간의 준영구의 기준 등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1절 7조(주요 업무 및 업무 분장), 2절 11조(기록물 관리), 12조(기록물 이관), 3절 19조(문서고의 시설과 장비 확보), 20조(문서고 보안 관리), 21조(사료관리시스템 및 장비 구축), 23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 4절 25조(열람 제한), 5절 26조(기록물 관리의 표준화 및 전문화), 27조(비밀 누설 금지), 30조(운영 사항) 등이 새롭게 추가 되었다. 이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
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관리법」)로 전면 개정되면서, 민간기록물의 영역으로 법의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과 함께 기업, 종교, 병원 등에서 생산되는 민간기록물의 관리 또한 중요해졌다. 이

러한 제도의 변화에 한국천주교주교회는 두 차례 개정을 통하여, 종교기록으로서의 가톨릭교회 기록의 중요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용어가 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서고 운영 규정〉은 총 5절 30조로 구성되어 있다. 문서고 설치 및 운영에서 이름과 목적, 기록물의 정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절 제4조에서 기록물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기록물이란 주교회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시청각물, 전자 문서 등의 기록 정보와 행정박물을 의미한다.” 이는 8조에서 다음과 같이 1호에서 7호까지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다음의 〈표 2〉로 정리할 수 있다.

제 8조 기록물의 분류 “기록물은 보관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1호	주교회의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접수한 모든 기록물 (교구청, 본당 사목구 성당들의 기록, 각종 보고서 등)
2호	교회의 재산관리 기록물(박물류 포함)
3호	비밀 기록물(교회법 제489조제1항, 제490조 참조)
4호	교회 사료(교회법 제491조 참조)
5호	교회 단체의 활동 기록(종교, 문화, 자선, 활동 기록 자료 등)
6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발행 간행물(성서, 전례서, 교회법, 등)
7호	위 1-6호의 시청각 기록물 및 전자 기록물

〈표 2〉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서고 운영 규정 1절 8조 기록물 분류〉

참조: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서고 운영 규정, p. 35~36 재편집〉

1호는 주교회의에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생산·접수한 모든 기록물로서 교구청, 주교좌 성당, 본당 사목구 성당과 기타 성당들의 기록 문서들과 문헌들로서 선거, 세례, 견진, 성품, 혼인, 사망, 교적 등에 관한 문서(회의록 포함)와 대장이 포함되며, 사목방문 기록, 각종 보고서, 각종 회의 관련 자료, 선교사 파견과 관련된 자료, 수도 서원에 관한 자료 등이 포함된다. 2호는 교회의 재산관리 기록물로서 박물류까지 포함한다. 3호는 비밀 기록물로서 교회법 제489조 1항⁴⁾ 제 490조⁵⁾를 참고하였다. 4호는 교회 사료⁶⁾로서 교리서, 예식

서, 기도서, 경본, 서한집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교회 사료를 뜻한다. 5호는 교회 단체의 활동 기록으로 종교, 문화, 자선, 활동 기록 자료를 말하며, 교회 단체인 레지오 마리에, 평신도 위원회, 꾸르실료, 빙첸시오회 등의 활동 및 자료 등을 뜻한다. 6호는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발행 간행물로서 「성경」, 「주석 성경」, 「전례서」, 「가톨릭교회 교리서」, 「가톨릭 기도서」, 「가톨릭 성가」, 「성무일도」, 「위령기도」 등 각종 문헌을 포함한다. 7호는 위 1-6호의 시청각 기록물(사진, 영상, CD, VHS 등)과 전자 기록물을 뜻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서고 운영 규정〉의 한계로 신지철(2018)은 이 규정은 구체적, 명시적 실행규정을 제시하기보다 전반적으로 포괄적이고 대략적인 규정만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록물에 대한 관리 측면은 배제된 체 물리적 보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즉 기록물을 수집, 보존, 전수하는 기능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관 및 수집된 기록물을 정리, 기술하여 서비스하는 관리 부분에 대한 규정은 미흡함을 알 수 있다(한국 국가기록연구원. 2004. p.101).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서고 운영 규정〉이 말하고 있는 기록 분류는 가장 전통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분류로써, 무엇을 기록으로 할 것인가라는 수집과 선별의 기준에 대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본 수도회는 이 규정을 기반으로 하여 보존기록의 수집과 선별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먼저 1절 3조의 목적을 통하여, 기록물을 이관, 수집하여 안전하게 보존하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고자 한다. 또한 기록물의 오용과 남용, 훼손과 망실을 막기 위해 문서고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는 현재 본 수도회 자료실에서 기록물을 이관, 수집, 보존,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일치함을 알

-
- 4) 제489조 1항 교구청에는 또한 비밀 문서고, 또는 적어도 보통의 문서고 안에 그 장소로부터 움직여질 수 없게 고정되고 완전히 잠겨진 서류 선반이나 서류함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비밀로 보존되어야 할 문서들을 극히 엄중하게 보관하여야 한다(강우일,『교회법전』, p.156).
 - 5) 제490조 1항 주교만이 비밀 문서고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항 교구장좌의 공석 중에는 비밀 문서고나 문서함은 진정으로 필요한 경우에 교구장 직무 대행 자신이 아닌 한 열지 말아야 한다. 3항 비밀 문서고나 문서함에서는 문서들을 끼내 가지 말아야 한다(강우일,『교회법전』, p.156-157).
 - 6) 제491조 2항 교구장은 교구에 역사적 사료 문서고도 설치하고 그 안에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들이 엄중히 보관되며 체계적으로 정리되도록 보살펴야 한다(강우일,『교회법전』, p. 157).

수 있다. 또한 1절 4조에서 기록물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기록물이란 주교회의 업무 수행 관정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도서, 시청각물, 전자 문서 등의 기록 정보와 행정 박물을 의미한다.” 이는 본 수도회가 기록물로 정의하고 수집, 이관하고 있는 기록물들의 정당성을 입증한다.

2절 8조 기록물의 분류에서 기록물을 총 7가지로 분류하고 있지만, 본 수도회는 문서고 운영 규정에서 제시하는 7개의 분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주교회의에서 작성한 규정은 수도회의 특성상 동일하게 적용하기 어려우며, 준현용 기록물과 보존기록이 혼재되어 수집, 이관되어 기록물의 분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교회의에서 생산 접수된 모든 기록물들은 본 수도회의 상황에 맞게 문서대장을 작성하여 분류 및 보관하고 있다. 4호의 교회 사료는 현재까지 계속 수집, 이관되고 있는 기록물이다. 그러나 교회 사료 부분은 유형별로 분류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다.

2절 11조 기록물 관리에서는 체계적인 기록 관리를 위하여 분류 기준표와 분류체계를 작성, 운영 관리의 역할을 표시하고 있다. 이 분류체계는 현재 본 수도회와는 다른 체계이다. 현재 본 수도회에는 준현용 기록물과 보존기록이 혼재되어 있어 좀 더 확장된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3.3 한국 천주교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침(2009)

교황청 문화재위원회는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교회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그 현황을 파악하고 보존, 보호, 진흥에 힘써야 한다.”고 권고하였다(주교회의 문화위원회, 2009 p.5).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화위원회에서는 2005년부터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먼저 건축, 미술, 박물관 세 분야로 분류하여 현황 파악과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고,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산하에 ‘교회 문화유산 분과’를 새로 신설(주교회의 문화위원회, 2009 p.2)하였으며, 대구대교구, 춘천교구, 원주교구를 답사하여 교회건축과 미술품의 보존 실태를 관찰, 기록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유네스코와 국가 문화재 보호법을 참고하였으며, 이탈리아 주교회의 <이탈리아 교회 문화재 지침>(1992)과 교회 문화재 사목국 사목 자료 <예술가와 예술 사목의 증진을 위한 제안과 권고>(2000), 필리핀 주교회의 교회 문화재위원회의 <필리핀 교회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안내서>(1998) 등의 내용을 참고하였고, <교회법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한국천주교 사목 지침서>⁷⁾(1995) 등에서 관련 내용을 인용, 참조하여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도록 보존 관리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주교회의 문화위원회, 2009). 5년 동안 기초 작업을 거쳐 2009년 주교회의 상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한국천주교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서는 교회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의 일반규범과 기본원칙을 정하고, 세칙과 구체적인 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한국 천주교회의 특수한 성격을 반영하여 마련한 분류기준라고 할 수 있다. 교구와 본당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별 관리카드 양식을 덧붙였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에서 활용되기를 기대하였다.

이 지침에 따르면 천주교 문화유산이란 “신앙관이 담겨 있는 문화의 산물로서 신앙인들에게 고유한 신심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 역사적 유물과 모든 예술품”으로 정의내리고 있다. 보존 관리의 기본 원칙과 기준은 보편성, 원형 유지, 토착화, 미학적 조화, 지속적인 협의, 교회 문화유산의 특성과 활용, 지속적인 감독이라는 7가지로 기준으로 나타내고 있다. 교회 문화유산을 동일한 기준과 방법으로 관리할 수 없으므로, 가치 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대상에 따라 보존 관리 지침을 설정하여야 한다. 가치 평가 기준은 총 5가지로 역사성, 예술성, 학술성, 희소가치, 경관적 가치(건축물에 한함)에 따라 문화유산의 등급을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9, p.8~10)

지침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1장은 천주교 문화유산의 정의, 제2장은 유산의 가치판단을 위한 보편적 기준과 선별 원칙이다. 제3장부터 제5장까지는 각 분야의 유산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이며, 이는 교회 건축과

7) 새로운 교회 법전이 1983년에 반포되었고 또 한국교회는 1984년 200주년을 경축하였다. 이 역사적 기회에 한국 주교회의는 1931년에 제정된 한국 천주교 공용 지도서를 개정하여 한국 교회의 개별법을 새로 제정하고 이를 한국천주교 사목 지침서라고 부르기로 하였다. 교회법전 번역위원회는 이 사목 지침서 편찬의 준비 작업도 병행하여 이 두 가지 일을 1989년 5월에 마무리 지었다(강우일, 『교회법전』, p.9).

미술, 교회 유물, 세 분야로 나누었다. 제6장에서는 교회 박물관으로 박물관의 자료 관리 정책과 활용 방안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 7장 관리체계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부록으로 분야별(교회건축물, 미술품, 유물) 소장품 관리 카드, 관리카드 정리번호 분류방법, 전체 자료 대장이 수록되어 있어 교회 문화유산을 소장하고 있는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분야별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물질적 교회 문화유산(성당, 성상, 회화 등의 유형의 범주)과 비물질적 교회 문화유산(전례, 성가, 회고담, 전례극 등과 같은 무형의 범주로 분류하고, 물질적 문화유산은 다시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뉜다. 동산에는 전례와 관련된 유물과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자료들로 교회 안에서 생겨난 신앙을 증언하는 기능을 하는 문화유산으로 세분된다. 또한 비물질적 교회 문화유산은 공적 전례와는 달리, 신심행위인 성가와 무용, 공연, 연극 등과 같이 다양한 종교적 행위들로 구분한다. 이상 <한국천주교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천주교 문화유산에 대한 분류기준을 정리한 것으로 다음의 <표 3>과 같다.

구 분	세 구 분	형 태	
물질적 교회 문화유산	부동산 (immovables)	조경과 외부 공간	성당 광장, 성지, 사적지, 묘지, 비석 등
		건축물	성당, 대성당, 순례지 경당, 공소, 종탑, 기숙사, 수도원, 주교관, 신학교, 가톨릭 학교, 가톨릭 병원, 피정의 집, 양로원, 성인 . 순교자 관련 건축물 등
		고정된 교회 장식물 및 기물	제대, 감실, 세례대, 스테인드글라스, 파이프오르간 등 반영구적으로 고정된 전례 예술품과 기물
	동산 (movables)	전례 미술	성화, 성상 등 전례 미술품, 제구, 제의, 장식 등
		교회 역사 자료 및 유물	한글 교리서, 서한집, 문서, 기록, 출판물, 삽화, 지도, 악기, 성해, 사진, 시청각 자료, 기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비품과 기물 등
비물질적 교회 문화유산	언어(verbal)	구비와 구전	천주가사, 성가, 회고담 등
	행위 (performal)	행위적 유산	축전, 전례 무용, 전례극, 성체 거동, 연도, 종교극 등

<표 3> <한국천주교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침 분류기준>

출처 : <한국천주교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침 p. 7>

또한 교회 유물은 동산에 해당되며, 교회 유물이란, “거룩한 장소에서 전례 거행을 위해 봉헌된 제대, 제구류, 성상류 등 다양한 전례 용품 및 본당의 역사와 함께하였던 역사적 기록물 등을 말한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09 p.27). <한국 천주교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침>에서 교회 유물은 ‘교회 박물관 유물 분류체계’를 관리 정책의 기준으로 제시한다. 회화, 제구류, 성상류 등 13개의 대분류로 나눌 수 있다. 가톨릭에서 교회유물의 유형과 범위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대분류	소분류
회화: A	작품 내용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순교사화, 성인 초상화 등 작품 제작 방법에 따라: 동양화, 서양화 등
제구류: B	교회 용품과 장신구, 행렬 용품, 제대 용품, 기타
성상류: C	내용상: 십자가, 성인상, 성모상 등 제작 방법: 조각, 공예 등
의류: D	제의류(기능별, 제작 방법), 수도복, 제구 용품
가구와 기물: E	고해소, 성수대, 장식장, 장궤틀, 성가대, 조명, 탁자, 의자 (목재, 철재, 대나무) 등
역사 자료: F	문서, 사진
서류: G	연도별 분류(고서-1950년 이전/이후), 일반 서적, 공해, 교리서, 잡지, 소설, 수첩, 일기, 건축 설계도 등
기념물: H	개인 소장품, 주교 문장과 상징, 교구와 본당과 교회 단체의 기념물 등
일반 예술품: I	도자기, 척물 작품 등
개인 신심 용품: J	목주, 상본, 상패, 장식물 등
악기: K	오르간, 종, 하프,
시청각자료: L	필름, 사진기, 테이프, 사진, 조명 등
기타: M	성인과 순교자의 유해 등

<표 4> <한국천주교 문화유산 보존관리지침>의 가톨릭교회유물 유형과 범위

출처 : <한국천주교문화유산 보존관리지침 p.33>

그러나 김성태(2018)는 <한국 천주교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침>은 문화유산의 보존에 대한 필요성에 따라 마련한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기대하는 만큼 그 원칙이 잘 이행되지 못했고, 목록화 작업도 이루

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그 이유는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제도적 측면에서도 주교회의는 협약체이기 때문에 규정에 대한 강제성이 없다는 것(신지철, 2018), 각 교구도 이를 적용, 관리하는데 무관심하며,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역시 위원이 바뀌고 나서 부속 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가톨릭신문, 특별기고, 2020년 1월 12일).

〈한국천주교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침〉에 따라 본 수도회는 기록물을 정리하고, 입수, 관리하고 있다. 먼저 교회 유물의 정의를 기반으로 하여 본 수도회에서 사용되어졌던 역사적 기록물인 다양한 전례 용품들과 기록들을 교회 유물로 정의하고, 수집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천주교 문화유산을 물질적 교회 문화유산과 비물질적 교회 문화유산으로 분류하는데, 수도회에서 입수하고 관리하는 기록물들이 이 분류기준에 따르고 있다. 명칭과 분류 기준은 다르지만, ‘고정된 교회 장식물 및 기물’로는 제대와 감실, 십자가 등을 소장, 관리하고 있으며, ‘전례 미술’로는 성화, 성상, 제구, 제의 등을 소장, 관리하고 있다. 또한 ‘교회 역사 자료 및 유물’은 각종 한글 교리서, 성해, 서한, 문서, 악기, 사진, 시청각 자료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비품과 기물 등이다. 특히, 본 수녀회의 사진과 시청각 자료, 서신, 카드 등은 매 년 거행되는 전례와 행사들에 따라 매년 생산되는 기록물이다. 비 물질적 교회 문화유산에서 ‘구비와 구전’은 성가와 회고담(구술 작업), ‘행위적 유산’으로는 수도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전례와 수도회 행사는 기록화 작업을 통해 기록으로 보존하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서고 운영 규정〉이 생산된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이라면, 〈한국 천주교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침〉은 보존기록의 선별과 수집에 대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기록으로 생산된 문서뿐만 아니라 역사적, 예술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으로 추후 계획적인 수집이 필요한 기록들과 기록화 작업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2.3.4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 (2017~2027)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은 2015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추계 정기

총회의 결정에 의해 시작되었다.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2017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10년 동안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의 목적은 첫째, 이는 전국에 산재된 한국천주교 사료의 기초 현황을 파악하여 사료를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 분석하고, 표준화된 목록을 개발하는 것이고, 둘째, 한국천주교 사료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여 통합 관리 및 대국민 통합검색 시스템을 구축하여, 한국 천주교회사 연구 활성화 및 인접 분야와의 교류 증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것이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20, p.9). 이는 이용자 요구의 양상이 인쇄자료에서 전자자료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합검색시스템 구현의 수효가 증가하였기에, 이러한 환경변화에 적응하여 한국 천주교 자료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 p.2).

2016년에는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효율적인 목록화 사업의 실시를 위한 환경 분석과 주요 정보를 수집하여 작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함이었다. 기관별은 본당, 기관, 학교, 단체 중 위치성, 역사적 의미와 대표성, 소장 사료의 수량, 관련 시설의 운영, 소장 사료의 활용을 기준으로 삼아 선별하였다. 연구 범위는 서울대교구가 소유하고 있는 한국 천주교와 관련된 자료(도서류, 문서류, 박물류)이고, 대상 기관은 한국교회사연구소,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도서관, 전례박물관,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절두산 순교성지), 서소문 순교성지 전시관(중림동 약현성당), 서울대교구 주교좌 명동대성당, 삼성산 성지, 가회동 성당, 서울대교구 문서고 이상 9곳이다(한국교회사연구소, 2016, p.6). 대상 기관을 방문하여 소장 사료의 목록과 사료의 보존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사료 분류와 정리 및 DB구축 현황을 확인하였다. 각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체계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기관	분류체계
한국교회사연구소	도서관리프로그램(DLi II)으로 도서를 입수, 정리 및 관리 도서 분류는 DDC, KDC, 워싱턴 가톨릭대학 도서관 분류표 를 검토하여 자체분류표 작성하여 사용.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도서관	일반서에 적용되는 KDC, DDC 분류와, 종교분야에 한해서 CCB(Clsddification for Catholic Books)를 적용하여 분류

가톨릭대학교 전례박물관	가톨릭대학교 종합포털정보시스템(uCUPS: Ubiquitous, Universal and United Catholic University Portal System) 내 별도의 박물관 항목으로 유물들을 정리, 관리함.
한국천주교순교자 박물관 (절두산 순교성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유물 관리 항목들을 기초로 하여 자체적으로 항목을 편집, 수정하여 사용.
서소문 순교성지 전시관 (중림동 약현성당)	별도의 유물관리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음. 엑셀과 한글 프로그램으로 정리하여 사용.
서울대교구 주교 좌 명동대성당	의류, 제구류, 서지류, 성상류, 성화류, 일반류로 분류. 정리함
삼성산 성지	사료의 수량이 많지 않아 별도의 분류체계 없이 보관, 전시 중 (세 분의 순교성인의 자료가 전부임)
가회동 성당	분류체계 없음. 이번 ‘한국 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 사전조사를 기회로 사료를 재분류하고 정리할 계획임
서울대교구 문서고	조직 분류를 기본으로 자체 제작한 ‘문서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나, 보관 및 관리에 적절하지 않아 기능 분류로 분류 체계 변경 고려.

〈표 5〉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조사〉 환경 분석

사전 조사 결과 총 9,285건의 사료가 조사되었다. 각 기관은 상호 연계없이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각기 다른 분류 체계와 정리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서, 사료의 파악과, 중복되는 사료에 대한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에 일원화된 정리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리가 필요하며, 일반 유물이 아닌 교회적 사료이기 때문에 특성에 맞는 정리 지침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사전조사 후 2016년 10월 학술발표회를 열었으며, 2017년부터 10년 동안 이루어질 목록화 사업을 시작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단계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이 완료되었다. 4만2천 419건의 목록조사가 이루어졌고, 사료 목록화가 완성되었다. 이 중 2천 287건은 디지털화 작업을 마쳤다. 이를 통해서 교구, 수도원, 연구소 등 각 기관에서는 통일된 사료 목록을 보유하였으며, 또한 사료의 보존과 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되는 2단계 사업 기간 동안 사료 전수조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며, 2024–2026년의 3단계 사업에서는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대

국민 통합 검색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사료의 범위는 한국천주교가 처음 설립되었던 1784년부터 교계제도가 확립되기 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전까지인 1965년까지 생산된 사료로 제한하였다. 시대적 분류로는 박해시기(1784~1885), 선교 자유기(1886~1910.08), 일제강점기(1910.09~1945.08), 대한민국(1945.09~1962), 미상(추정) 이렇게 5개로 분류하였으며, 또한 기관별로 교구와 수도회로 분류하였다. 유형별 분류는 도서류, 문서류, 박물류, 시청각류로 총 4분류를 하였으며, 조사 대상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사료의 유형은 다음의 <표 6>과 같다.

구분	내용	
시간적 범위	1784년~1962년(한국천주교회 창립~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공간적 범위	교구청 문서고, 교구 교회사연구소 본당 및 기타 천주교 사료 소장처	
사료의 유형	도서 /간행물류	교리서, 교회간행물, 교회사, 기도서, 묵상서, 사전, 성서, 성인전, 신심서, 전례서, 천주가서, 호교서, 기타
	문서류	강론, 괘서, 권고, 규정, 담화, 대장, 도면, 배정기, 비망록, 서한, 알림장, 연설, 윤음, 일기, 재산자료, 족보, 첨례표, 카드, 통계자료, 회유문, 회의자료, 회칙, 공문, 증명서, 명함, 기타
	박물류	미술품, 상징/상패, 성물, 성상, 악기, 유해/유품, 의복, 전례기물, 제단기물, 기타
	시청각류	인화된 사진, 사진필름, 슬라이드 필름, 사진CD, 음성 테이프류, 영상테이프류, 릴테이프류, 레코드류, CD/DVD류, 기타

<표 6>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사료의 유형

출처 : <2018년 사료 목록 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 자료집 p.3>

연구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따른다.



<표 7>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 연구 방법

출처 : <2020년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 학술 연구 용역 최종 보고 자료집 p20>

소장 사료 현황파악으로 기관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 일정 및 방법, 내용을 포함한 전수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사료 선별은 기관의 사료 소장 위치별로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사료를 선별 정리하였다. 개인신상 정보 및 기관의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사료는 별도로 분류한다. 다음 유형별 분류로는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의 사료 분류기준(도서류, 문서류, 박물류, 시청각류)에 맞추어 사료를 유형별로 분류하였다.

먼저 사료의 계층을 설정한다. 이는 각 기관의 내부 기준에 따라 등록 대상에 알맞은 사료 계층(사료군-하위사료군-계열-하위계열)을 생성한다. 여러 건의 사료가 세트(set)로 구성되었거나 합쳐 된 경우, 별건의 사료들이 연관 관계가 명확한 경우는 '사료철' 생성 후 하위 사료 건으로 등록한다. 목록화 대상 사료 확정 과정을 통해 목록화 대상 최종 사료를 확정하고, 사료번호를 부여한다. 사료는 형태별, 재질별, 특성에 따라 개별 사료에 마킹 작업 후, 기초목록(가목록)을 작성한다. 기초목록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사료 유형	소장 위치	사료 번호	사료 명	수량		생산 일자	실측정보		기타
				건수	점수		건수	점수	

<표 8>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 기초 목록

출처 : <2020년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 학술 연구 용역 최종 보고 자료집 p.21>

그 외의 각 분류별 특징적 세부사항은 다음의 <표 9>와 같다.

유형별	세부사항
도서류	저자, 발행일자, 발행자정보, 판차, 색상
문서류	수신일자, 수신자정보, 원본구분, 면구분
박물류	문양, 장식, 명문, 색상
사진.필름류	보관형태, 추가사항

<표 9>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 분류별 세부사항

출처 : <2020년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 학술 연구 용역 최종 보고 자료집

p.31-34 재편집>

목록작성은 현장조사와 문헌 조사 후 사료 유형별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가 구축한 사료등록시스템에 건별로 등록하며, 기입 내용에 따라 4개의 섹션으로 구분되었다. 사료등록시스템의 사료 목록은 〈표 10〉과 같다.

소장정보	사료의 소장 기관, 교구/수도회, 소장 위치, 지역정보 기입
기본정보	사료의 형태 및 내용 정보 기입 각 유형별 기본 정보 항목의 차이가 있음 사료번호, 주수량, 사료명, 발행자, 수신자, 발행년도, 크기, 주기사항 등
분류정보	사료의 분류 정보 기입 각 유형별 분류 정보 항목의 차이가 있음 장르(주제별, 재질별 분류 등), 국적, 언어 등
관리정보	사료의 보존 및 이력 정보 기입 입수연유, 지정구분, 보존상태, 공개여부, 사진번호 등

〈표 10〉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 사료등록 시스템 목록

출처 : 〈2018년 사료 목록 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 자료집 p.4〉

2017년에서 2019년까지 1차 사료조사는 완료한 상태이며, 2020년부터 2차 조사를 시작하였다. 대상 기관은 사전 조사 계속 확장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총 7개 교구의 문서고, 12개의 교구 연구소, 35개의 본당 및 공소, 3곳의 수도회, 6곳의 성지 및 박물관이 대상 기관이었다.

목록화 사업을 통하여 그 동안 조사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성지들과, 교구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사업들에 수도회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사료 전수조사와 함께 현황을 파악하고, 기본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료등록시스템에 등록해 연구의 활용할 수 있게 된 점도 이번 조사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또한 천주교 역사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역사와 정부와의 협력 관계 또한 연구하는 데도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

한계점으로는 사료들의 물리적 보관 상태의 문제점이었으며, 가톨릭의 특성상 전례와 천주교 사료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하며, 언어에 대한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연구 인력의 부재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기관들과 목록화 사업에 관리 대상인 사료의 범위가 달라서 이

중으로 작업을 진행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보존기록은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의 유형별 분류(도서·간행물, 문서류, 박물류, 시청각류)를 따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기록의 이관, 수집, 보존, 활용에 적용하고 있다.

이상의 가톨릭교회의 기록관리 체계를 통해 규정과 지침의 목적과 대상기록물, 분류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구 분	목 적	대상기록물	분류기준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문서고 운영 규정 (2009)	문서고의 운영과 체 계적 관리를 위해 필 요한 사항을 규정으 로 정함.	- 교구청·본당 사목구 성당 들의 기록, 각종 보고서 - 교회의 재산관리 기록물 - 교회 사료 - 단체 활동 기록(문화, 자 선, 활동 기록 자료) - 성서, 전례서, 교리서 등 간행물 - 시청각 기록물과 전자 기록물	- 기능 - 유형 - 출처
한국천주교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침 (2019)	교회 문화유산을 보 호, 보존, 활용, 향유 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침 마련	회화, 제구류, 성상류, 의류, 가구와 기물, 역사 자료, 서류, 기념물, 일반 예술품, 개인 신심 용품, 악기, 시청각자료, 기타 등	- 유형(형태) - 출처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 (2017~)	- 한국천주교 사료의 기초 현황 파악, 조 사, 정리하여 표준 화된 목록 개발. - 대국민 통합검색 시스템 구축	도서류, 문서류, 박물류, 사진, 필름류	- 유형

<표 11> 가톨릭교회 기록관리 체계 현황

III.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의 특성과 관리 현황

3.1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조직과 기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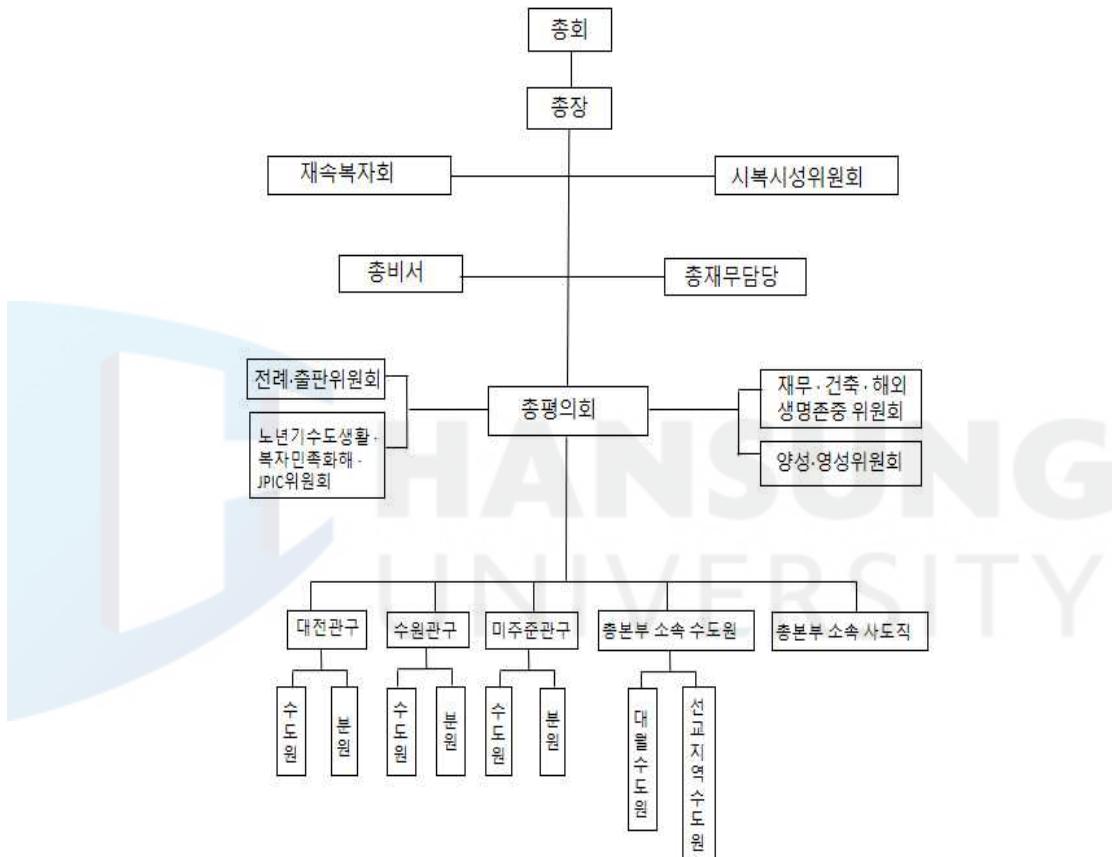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방유룡(方有龍, 래오, 1900–1986)사제에 의해 1946년 4월 21일에 개성에서 창설되었다. 1952년 7월 2일에 교구 설립 수도회로 인준되었고, 2007년 관구설립을 통해 대전관구와 수원관구로 분리되었으며, 2021년 9월 20일 성좌설립 수도회로 인준 받은(한국순교복자수녀회, 2021, p.1) 관상과 활동을 겸한 형제적 수도공동체이다. 본 수도회의 회원은 정결, 청빈, 순명의 공적서원⁸⁾을 발함으로써 하느님께 축성되며, 수도회의 특수 목적은 ‘회원 각자의 성화와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순교정신과 형제애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한국순교복자수녀회, 2021, p.2).

한국 교회는 100년이 넘는 긴 박해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순교자(殉教者)⁹⁾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한국의 순교자들을 특별히 공경하며, 그 정신을 이어받고자, 한국의 순교자들을 주보(主保)성인¹⁰⁾으로 정하며, 수도회의 명칭은 순교자를 현양하는 뜻으로 ‘한국순교복자수녀회’라고 명하였다. 사도직¹¹⁾으로는 순교자 현양 사도직, 본당 사도직, 교육 사도직, 의료 사도직, 해외 선교 사도직, 사회복지 사도직 등으로 약 500여명이 넘는 회원이 사도

-
- 8) 서원이란 교회법 1191조 1항, 서원은 종교의 덕행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가능하고 더 좋은 선에 관하여 심사숙고하고 자유로이 하느님께 맺은 약속”이다. 공적서원은 1192조 1항, 합법적인 장상에 의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되는 서원은 공적서원이고, 그 외는 사적서원이다(강우일, (2011), 『교회법전』, p.607)
- 9) 자기가 믿는 종료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행위.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소중한 생명을 바치는 이 행위는, 그리스도의 진리성과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진실성을 죽음으로써 증명하는 행위이며, 그리스도인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완성된 단계를 말한다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2006), 『한국가톨릭대사전』 제8권, 한국교회사연구소, p.5156).
- 10) 신자 각 개인을 위해 또는 한 단체나 성당을 위해 하느님 앞에서 중재하고 응호해 주며 보호해 주는 수호자로서 공경하는 성인. 주보(主保)성인 이라고 한다.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 (2006), 『한국가톨릭대사전』 제8권, 한국교회사연구소, p.5145)
- 11)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행동으로써 증거하는 사도로서의 직무. ‘파견’또는 ‘사명’에서 유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사도직을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활동”이라 정의하고,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2006), 『한국가톨릭대사전』 제6권, 한국교회사연구소, p.3857–3861)

직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소장기록물 생산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조직구조와 업무, 조직운영에 대한 지침 등을 중심으로 조직의 기능과 업무활동을 조사하였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조직도는 다음의 <그림 2>와 같다.



부서	업무 분담
선교지역수도원 (3)	(이탈리아) 로마 성 정하상 바오로 수도원, (프랑스) 트랑 성녀 소파데레사 수도원, (세네갈) 다카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수도원
충본부 소속 사도직 (13)	종예반, 국제양성소, 자료실, 도서실, 특별회원, 순교의 맥, 북방선교, 전례음악실, 복자장학회, 무아방유롭영성연구소, 면형사제기도모임, 마MMdd암재단

<그림 2>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조직도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통치 체제는 사도직 활동 수도회에 일반적인 체제인 중앙 집권 체제로서 총장의 관할 아래 모든 관구와 공동체, 회원이 존재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행정 조직의 기능과 업무활동을 중심으로 생산되는 기록물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총회는 수도회 전체를 대표하는 수도회 내의 최고기관이며, 공동체적으로 수도회 전반에 대해 성찰하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특별기구로, 최고 권위를 갖는다. 총회는 6년마다 열리며, 수도회의 사명과 영신적 사도적 활동을 증진시키는 일과 경제적인 문제들을 검토하여 일반적인 제반 지침과 방향을 설정하는 일, 총장과 총평의원을 선출하고, 회헌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에 대해 심의하고 결정한다(한국순교복자수녀회, 2021, p.38~40). 기록물은 총회 의사록, 총회문서, 총회보고서, 총회안건 제의, 총회준비위원회 회의록, 총회준비과정 자료, 총회결의안, 후속작업 등의 기록물이 생산된다.

총장은 모든 관구, 지역공동체, 회원들과 함께 형제적 공동체 건설을 위한 통상권을 가진 최고 권위의 봉사자이며, 행정 수행에서 총평의회와 함께 중요 안건을 심의, 결정하며, 수도회의 모든 결정은 총장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 2021, p.40). 기록물로는 모든 회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보내는 월 공문이 있다. 또한 회람과 대내 발신문서들(대전관구, 수원관구, 미주 준관구, 대월수도원, 전회원 등), 대내 접수문서들(대전관구, 수원관구, 미주 준관구, 대월수도원, 본회기관, 부서 접수문서, 내부수신 서한(회원) 등), 대외 접수문서(타 수도회, 교황청관련기구, 교구, 수녀연합회 등)과 각종 보고서들, 법적 순시 보고서 등이 있다.

재속복자회는 1957년 3월 6일에 창설되어 한국의 순교자들을 주보로 모시며, 수도회의 영성과 복음을 생활화하여 세상 안에서 수덕의 삶을 사는 평신도 단체이다. 세상 안에서의 미사, 성무일도, 피정 등의 기도생활과 함께 월례 모임과 구역모임, 계속 교육 등의 형제적 생활, 그리고 사회와 교회현장 안에서 사도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 재속복자회에서 생산되는 기록물로는, 일지와 각 구역별 월 모임, 구역일지, 교육 자료, 회칙, 총평의회 보고서, 창설기념품, 회원 유품 등이 있다. 시복시성위원회는 창설자 무아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님의 시복시성¹²⁾을 준비하는 기구이다. 이는 창설자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수도회를 설립한 의도와 계획, 정신과 삶의 모습을 증거 하여, 보편 교회 안에서 공경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창설자의 직접적인 기록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으나, 생전에 생산된 강론, 메시지, 저술 등과 관련된 박물이 있고, 사후에 생산되고 있는 창설자 관련 연구 저술들, 창설자 관련 보고서, 회의 보고서, 일지 등이 있다.

총비서는 총장과 총평의회의 직무수행에 협조하며, 총평의회의 동의를 얻어 총장에게 임명된다. 수도회의 공문서를 관리, 보관한다. 수도회의 문서 관리로는 설립관계에 관계된 문서로 수도회 인가서, 초창기 규정, 정관, 회헌, 회원 명단, 회원 관련 서류(입회, 지원서, 유기서원, 종신서원 관련, 회원신상서 등), 총회문서, 사도직 보고서, 교구나 타 수도회 등의 수발신 공문 분원 및 본부일지 등을 관리, 보관하는 역할을 한다. 총비서의 생산기록물은 중요 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의 일지 등이 있다. 총 재무담당은 총장의 지도 아래 본 수도회의 현세적 재화를 정의, 애덕, 수도적 청빈의 정신 안에서, 본회 사명 수행에 적합하도록 재정을 관리하며, 그 내용을 총장과 총평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총평의회는 수도회의 영적, 사도적 활동에 대한 상황 검토 및 예산, 결산 심의, 회헌의 준수, 재산의 양도 매매 등 중요 사안에 대해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고 결정하는 기구이다. 즉 수도회의 모든 정책논의는 총평의회에서 이루어진다. 총평의회는 총평의원으로 이루어지며, 총회에서 선출되고 총장의 권위의 봉사하며 협력한다. 또한 총장은 가능한 총평의회의 의견을 듣고 협력 하에 주요정책들을 결정하고 수행한다. 총평의회는 4개의 위원회로 이루어지며, 재무 · 건축 · 해외 · 생명존중위원회, 전례 · 출판위원회, 노년기수도생활 · 복자민족화해 · JPIC위원회, 양성 · 영성위원회로 구성된다. 총평의회의 관련 기록은 수도회의 주요정책들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록이다.

12) 하느님을 위하여 순교를 하였거나, 특별히 성덕이 높은 분들의 행적을 평가한 후, 죽은 후에 신앙의 모범을 본받고 온 교회가 공적으로 공경할 수 있도록 선포하며, 가경자(加敬者), 복자(福者), 성인(聖人) 등의 칭호를 붙인다. 시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시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복자(福者)로 추대하는 것이 시복, 성인으로 추대하는 것을 시성(謚聖)이라고 한다(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2006), 『한국가톨릭대사전』 제8권, 한국교회사연구소, p.5326-5333).

재무 · 건축 · 해외 · 생명존중위원회는 수도회의 전체 재정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총장과 총평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재무기록은 법적, 증거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중요한 업무이며, 기록물들이다. 수도회 총 재정관리, 사회복지법인관리, 시설관리, 연금, 차량관리, 특별 회원 및 은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기록물로는 재단관계 기록물(정관, 사업자등록증 등), 부동산 관계 기록물(부동산 소유에 관한 문서), 세무 관계기록(기부금, 봉헌금 대장, 연중 예산서 및 결산서, 세무증거서류, 소득신고 등) 등이 있으며, 건축, 개축에 대한 인 허가서, 토지대장, 평면도 등의 기록물 등이 있다.

양성 · 영성 위원회에서는 회원들의 양성과 계속 교육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양성은 “한 인간이 성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처음 시기부터 수도자가 죽음 안에서 결정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최종적 완성의 순간까지 주님께 봉헌된 생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규정한다.¹³⁾ 회원들의 피정, 연수, 전문적 교육 등을 연구, 평가하고 기획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생산되는 기록물로는 회원들의 피정, 연수 계획서 및 보고서, 영성 및 교육 자료, 피정 및 연수 강의 자료 및 녹음자료 등이 있다.

노년기수도생활연구 · JPIC · 복자민족화해위원회에서는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수도회에서 노년기 삶에 대한 연구와 실천, 기획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노년기 수녀님들의 관련 서류들, 세미나 및 교육자료, 시청각기록물 등이 생산되며, 환경오염에 적극 대처하는 역할을 하는 JPIC는 본 수도회 차원으로 활동하지만, 한국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연합회를 통하여 더 확대되어 활동하고 있다. 환경을 살리기 위한 방안들을 교육, 실천, 홍보 등의 활동을 하며, 활동에 따른 회의록, 보고서, 교육자료 등이 해당된다.

전례 · 출판 위원회는 본 수도회 전체의 전례에 대한 책임과 전례 교육활동이 있다. 전례 관련된 각종 예식서와 규칙서, 전례 회의 보고서 등이 생산된다. 출판위원회에서는 본 수도회에서 출판의 기능을 담당하며 회원들의 저서 출판과 본회 연간지인 ‘순교의 맥’ 출판을 수행한다.

관구(한국순교복자수녀회, 2021, p.43)는 2007년 설립된 관구는 대전관구와

13) 수도자 및 재속회 성성이 제시한 규범, (1983) <사도직 활동에 헌신하는 수도회에 적용할 수도생활에 관한 교회 가르침의 본질적 요소> 44항.

수원관구, 미주 준관구로 분리되며, 자체적인 통상권을 가진다. 관구분리 후 관구에서 생산, 수집되는 기록물은 일정기간 관구에서 보관 후 총원으로 이관된다. 현재 관구분리 후 대전, 수원관구, 미주 준관구에서 총원으로 이관된 자료는 없다.

총본부 소속 사도직은 종신서원예정반, 국제양성소, 자료실, 도서관, 특별회원, 무아공동체, 순교의 맥, 북방선교, 전례음악실, 복자장학회, 무아방유룡영성연구소, 면형사제기도모임, 마멜 암재단 등 총 13개의 사도직이 있으며, 각 사도직 활동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은 각 공동체 생활과 활동을 기록하는 일지, 주간마다 열리는 주간회의록, 자치회 회의록, 사도직 업무에서 생산되는 기록물, 회보, 월보, 기증자료 등이 입수된다.

총본부 소속 수도원은 관상부인 대월 수도원과 선교지역 수도원으로 이탈리아, 프랑스 세네갈 3곳이 있다. 대월 수도원은 현재는 자체적으로 기록물을 보관하고 있으며, 총원에는 초기 대월 수도원 설립 관련 문서와 사진첩 등을 소장하고 있다. 선교지역 수도원의 기록물은 선교지 파견 관련된 서류들과 박물류를 소장하고 있다.

위의 언급된 조직 외에도 수녀회의 상황에 따라 비상설위원회(TFT)가 조직되어 활동할 수 있다. 이는 특정 목적의 달성을 함께 해산되기에, 활동이 끝난 후 더 이상 기록물은 진행되지 않고 입수 완료된다. 비상설위원회로는 건축TFT, 회헌 개정위원회, 복장 변경위원회(수도복 변경)등이 있다.

3.2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의 특성 및 관리 현황

3.2.1 보존기록의 유형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1946년 창설된 후 2022년인 현재 창설 76주년을 지내며 다양한 기록물이 생산되고 수집되고 있다. 현재 수도회의 기록들은 각 사도직 활동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물이 생산, 이관, 수집되어 혼재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사도직 활동 이외에도 '신앙의 토착화를 위하여 각 지역의 고유문화를 연구 보존한다.'(한국순교복자수녀회 규정, 2021, p.3)라는 본

수도회의 회헌에 따라 민속 유물 수집을 창립 초기부터 이어가고 있으며, 교회사를 연구를 위한, 교회의 사료 수집 활동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런 활동들이 현재의 보존기록들의 기반이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창설자들의 유품, 선종 회원들의 유품, 생존 회원들의 기증품, 사도직 활동에서 생산되는 기록 등이 수집, 이관되면서 대부분의 소장기록물은 보존기록으로 구성되었다.

수녀회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직이 생산한 기록과 함께 보존기록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록물이 본 회원의 기록, 즉 수도자의 사적인 기록들이다. 수도자들은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기 위해 축성된 존재들이므로, 그들의 삶 또한 수도회 차원에서 기념하고 기록해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 이유는 수도자 한 개인의 삶은 수도회의 영적인 삶을 살아간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도자의 사적 기록은 조직도나, 제도적 영역 밖에 있으며, 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생산 및 이관할 수 없으므로, 수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수도자들의 사적인 기록물은 수녀회의 기능적, 행정적 업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기, 서신류, 성상류, 사진, 복장, 개인자료 등 다양한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다.

본 수도회가 소장하고 있는 보존기록은 ‘주제’와 ‘유형’, ‘박물’의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다. 주제 분류로는 행정조직(사무국, 관리국으로 재단, 회계, 시설, 공문 등), 본원(분원일지, 회계, 행사박물, 해외 분원 등), 창설자(문서, 일기, 도서, 성물, 서신, 복식 등), 회원 개인(일기, 서신, 성물, 복식 등) 등이며, 유형 분류로는 시청각(사진, TAPE, VHS, CD, 릴Tape 등), 인쇄물(고서, 간행물, 단행본, 논문 등), 디지털 파일(사진, 동영상, 녹음, 이미지파일 등)이다. 박물 분류로는 박물(제구, 제의, 성상 등), 기타(행정박물, 민예품, 기증품 등)로 분류하였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보존기록의 현황은 다음의 <표 12>와 같다.

	구 분	세부구분	기록물 건수
주제	행정 조직 (사무국, 관리국)	재단, 회계, 시설, 정관 등 공문, 회원, 창설자 기록, 총회 등	862건 2,024건
	본원	분원일지, 회계, 행사박물, 해외분원 등	2,026건
	창설자	문서, 일기, 도서, 성물, 서신, 복식 등	920건
	회원 개인	일기, 서신, 성물, 복식 등	2,500건
유형	시청각	사진, TAPE, VHS, CD, 릴Tape 등	9,500건
	인쇄물	고서, 간행물, 단행본, 논문 등	855건
	디지털 파일	사진, 동영상, 녹음, 이미지파일(스캔)	8,300건
박물	박물	제구, 제의, 성상 등	720건
	기타	행정박물, 민예품, 기증품 등	875건

〈표 12〉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 현황 (2021년 기준)

위의 〈표 12〉와 같이 보존기록은 다양한 유형과 행정 관련 및 개별 회원의 기록 등 다양한 출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사무국과 관리국에서 매년 이관되는 기록들과 각 회원들이 기증하는 보존기록들, 선종 회원들의 유물, 민예품, 행정박물 등 기록들이 계속 수집, 이관되고 있다. 현재 기록들은 출처와 유형에 따라 분류, 관리하고 있으나, 그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리와 기술에 어려움이 따른다.

3.2.2 현 분류표 구성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서고 운영 규정〉 제4조에 따르면 “분류체계란 업무의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업무를 기능 기준으로 분류하거나 생산·접수한 조직을 중심으로 분류하여 기록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현재 분류표의 구성을 보면 분류체계는 크게 주제별 분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제 구분 아래 기능, 출처, 매체 등 여러 기준이 혼합되어 있다.

다음의 〈표 13〉은 기존 분류표이며,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편철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는 단순한 기록물의 배열과 목록 작성, 즉 열거식 분류임

을 알 수 있다. 이는 출처의 원칙과 원질서의 원칙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일정한 기준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류인 ‘C 창설자’ 아래, 창설자인 방유룡 신부님이 생산한 기록물과 창설자를 주제로 한 다른 출처의 기록, 예를 들어 수녀회 회원의 창설자에 대한 저서, 논문 등이 함께 분류되어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자료들은, 비록 그것들이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함께 섞여서는 안 된다”(Miller. 2002, p.15)는 기본 원칙에서 어긋난다. 또한 하나의 출처인 방유룡 신부님의 기록들이 매체에 따라 ‘C 창설자’와 ‘D 창설자 복장’으로 나누어 분류되어 있다. 이는 같은 출처를 가진 기록들을 생산 당시의 질서와 순서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보존기록은 계층적이고 집합적인 질서에 의해 정리해야 하는 원칙에서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편철기준
A 사무국 연계문서	총회, 총원장, 위원회 등	성헌, 교령, 회칙, 회헌, 규정 등	연도별/가나다순
B 사진, 영상관련	사진, 필름, CD, LP, VHS 등	분원, 회원 개인, 행사, 전례사진 등	주제별/연도별
C 창설자	창설신부님, 공동창설자	수도복, 도서, 성물, 서신, 일기 등	주제별/연도별
D 창설자 복장	수도복, 제의 등		주제별/연도별
E 사도직 관련	자치분원, 파견분원, 철수분원	분원약사, 일지, 기념품, 도서 등	기관별/연도별
F 선교	아시아, 미주, 유럽, 아프리카 지역	분원약사, 소식지, 성물, 일지 등	나라별/연도별
G 전례	예식서, 제구 등	기도서, 성상, 감실, 역대 전례서	주제별
H 회원	선종회원, 생존회원	개인서류, 서신, 일기 등	회원수도번호별
I 역사	본회역사, 한국교회역사	관련책자, 보고서, 신문 스크랩, 기념품 등	주제별/연도별
J 민예, 박물류	민예품, 가구 등		주제별
K 디지털 파일	사진, 영상, 녹음파일 등		주제별/연도별

〈표 13〉 한국순교복자수녀회 현 분류표 (2021년 기준)

3.3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의 이용 현황

3.3.1 보존기록의 이용 대출 현황

기록의 최종 목표는 활용에 있다. 이용자는 적절한 절차를 통하여 기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본 수도회는 이용자들에게 열람 및 대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보존기록을 이용, 대출하기 위해서는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는 본회 홈페이지(<http://sbkm.kr>)에서 내려 받아서 작성할 수 있다. 관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복사와 파일 제공 서비스만 가능하다. 다른 교구 및 가톨릭 기관은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가 아닌 ‘공문’으로 기록물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는 2019년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신청서에는 수도번호/성명(수도명), 소속관구/분원명, 연락처, 자료 대출 사유, 자료 대출 요청일, 자료대출 내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등록번호는 자료실에서 기입하며, 자료실 책임자와 본 수도회의 총비서의 확인 후 기록물이 공식적으로 대출된다.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는 다음의 <그림 3>과 같다.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				
수도번호/성명(수도명)				
소속관구/분원명				
연락처	전화	메일		
자료 대출 사유				
* 첨부 자료와 파일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1) 요청한 수도회 자료는 그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2) 타인에게 복사해주는 일이 없도록 사용 범위를 정확하게 지정할 것 3) 자료 등록을 정확하게 하될 것 예상된 제공 : 충분 자료실				
자료 대출 요청일	년 월 일 요청한 자료는 요청일로부터 10일 후부터 반출 수 있음 (신청서 첨부와 자료 접속 소요 시간 포함)			
자료대출 내역 : 자료실 기입				
NO	등록번호	요청자료 명칭	자료수량	비고
1				
2				
3				
저작권 윤리를 지킬 것을 약속하며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자료실 소장품 및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자료 대출 신청인 : 자료실 책임 : 총 비서 : 년 월 일				

<그림 3>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2019년 기준)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보존기록의 이용자는 활용범위에 따라 관외이용자와 관내이용자로 구분된다. 관외 이용자는 본 수도회 회원 및 타 기관(박물관, 기념관 등)의 이용자로써, 기록물의 활용이 본 수도회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이고, 관내 이용자는 본 수도회의 회원이 기록물을 내부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보존기록의 관외 이용 건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총 24건이 접수되었고, 연 평균 8건의 기록물을 이용하였다. 또한 관내 이용 건수는 총 117건이 접수되었고, 연 평균 39건의 기록물을 이용하였다. 이용 현황은 〈표 14〉와 같다.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평균
관외이용자 (건)	2건	12건	10건	8건
관내이용자 (건)	33건	41건	43건	39건

〈표 14〉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연도별 보존기록 이용현황

3.3.2 보존기록의 이용 현황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보존기록에 대한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 분석을 통하여 현재 회원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보존기록의 이용 현황을 분석하면, 전시, 출판, 연구지원 및 열람서비스, 교육, 홍보 5가지로 구분된다.

① 전시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순교자들의 기록과 유물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교활동으로 파악하고, 1954년 10월 제 1회 ‘한국가톨릭 사료 전시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시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현재 순교자들의 기록들과 교회사 관련 기록, 개인 회원의 기록 등을 활용하여 연 1회의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전시공간으로는 서울 총원의 면형동 전시홀과 무아방유릉기념관 2곳이 있으며, 본 회원들의 피정장소인 충북 진천의 ‘무아의 집’이 있다.

전시의 주제는 주로 수녀회 역사 관련, 개인 회원관련, 한국천주교 교회사

관련, 창설자 관련, 해외 선교지 관련 주제로 진행된다. 보존기록들의 전시와 사료 해제 등이 있으며, 설명과 안내가 함께 제공된다. 전시 규모는 작지만, 회원들에게 본 수도회의 역사와 가치를 일깨워주고, 수도회 고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출판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본회 소식지로 1959년부터 1975년까지 <옥잠화>가 출판되었고, 10년 간 휴재 후 1985년부터 <순교의 맥>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연 1회 발행되고 있다. <순교의 맥>은 출판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수도회 소식과 각 회원들의 소식, 교회사, 교리 연구, 회원 작품 등이 실리며, 보존기록이 활용되는 본 수도회의 고정적인 기록정보 서비스이다. 또한 창설자 영성 및 본 회원의 창작물 및 논문 등의 출판 등에도 관련 보존기록들이 활용된다.

③ 연구지원 및 열람 서비스

본 수도회는 회원들의 학업 및 학술 연구, 논문 작성을 위한 보존기록들을 지원한다. 주로 본 수도회 관련, 또는 창설자 영성에 관한 연구의 자료 요청이 가장 많다. 순교자 관련 기록이나 한국 교회사 관련 기록 요청의 경우, 한국 교회사 관련 기록들과 그 당시 본 수도회의 역사 기록 등을 함께 대출하여, 폭넓은 연구를 지원한다. 또한 수도회 내부적으로는 보존기록을 행정상 업무와 증빙자료의 첨부 등으로 활용하며, 대내외적(타 교구, 타 수도회)으로는 보존기록과 보존기록 관련 정보 요청으로도 활용된다. 또한 가톨릭교회 기록물은 교회사뿐만 아니라, 그 시대와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의 내용이 반영되는 기록물로써 타 기관과의 기록 정보의 교류 및 제공을 통해 본 수도회는 한국 가톨릭교회의 이바지하고 있다.

④ 교육

교회의 가르침에서 양성은 더욱 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가고 그분과의 일치 및 그분을 닮는 가운데 성장해 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한다. 구체적 양성

과정은 수도회마다 차이가 있으며, 각 수도회별 카리스마를 습득해 가는 과정이다. 또한 창설자의 정신을 배우며, 하느님께서 창설자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배우고, 형제들과 함께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양성의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 본 수도회는 교육용으로 창설자 관련 사진, 친필, 육성 파일 등을 지원한다.

⑤ 홍보 – 홈페이지 운영

본 수도회는 2002년부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외적으로는 수도회의 홍보, 그리고 내적으로는 본 회원들 간의 소통과 친목을 도모한다. 홈페이지에는 본 수도회의 소개 및 창설자, 영성, 양성 과정, 교회사 등의 정보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며, 이 때 가장 많은 보존기록이 활용된다. 또한 본 수도회에서 특별히 기념하는 날(창립기념일, 창설자 기일, 금은경축 등)에는, 본 수도회 자료실에서 보존기록을 기초로 영상을 제작하여 홈페이지에 업로드하고 있다. 이는 각 회원들에게 소속감과 정체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IV. 자료 수집과 분석

4.1 자료 수집과 분석

수녀회의 보존기록 정리체계 개선을 위한 자료 분석은 상향식 분석과 하향식 접근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상향식 방법으로 연구 참여자 6명의 신청서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하여 보존기록의 검색을 위한 키워드를 부여하고, 범주화를 통해 맥락,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분류기준을 도출하였다. 하향식 방법으로는 문헌조사를 통해 가톨릭교회 기록물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핵심 개념들과 출처, 주제 중심의 분류기준을 도출하였다. 신청서 내용분석과 문헌조사를 통해 추출한 고유 개념어들을 기능, 조직, 주제로 범주화 하였다. 범주화는 2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1차 연구자가 도출한 일반적인 키워드 유형의 범주를 중심으로 2차에서는 문헌정보학 전공자 3명이 기능, 조직, 주제의 구분지에 따라 기록물군(Group), 기록물계열(Series)로 기록물파일(File)로 구조화하였다.

이와 같은 범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수녀회 분류체계에 대한 분류기준과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수녀회의 분류표와 매핑하였다. 매핑을 통해 기존 분류표의 구조와 분석결과 도출된 분류체계의 구조 사이의 차이점을 살펴본 후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4.1.1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 내용분석과 연구 참여자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보존기록 정리체계 개선을 위해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기록물 이용의 증빙자료인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의 내용분석을 통해 이용자의 기록 검색 요구를 조사, 분석하였다. 2019년부터 2021년 까지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관내이용자(117건)와 관외 이용자(24건)의 신청서 총 141건으로 실시하였다.

신청서는 내용분석을 위한 연구 참여자는 자료실 관리자가 아닌, 현재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소속 회원 6명을 선정하였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회원으로

연구 참여자를 선정한 이유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소장기록물의 주요 이용자이며, 소장기록물의 특성상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폐가식으로 운영되며, 외부인이 스스로 검색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이들 참여자들은 주요 이용자들을 대표하여 가톨릭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본 수도회의 역사와 기록물에 대한 지식이 있으며, 기록물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이용자 군으로서 연구 참여자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연구 참여자의 특성은 다음의 <표 15>과 같다.

특성	수도연령 ¹⁴⁾	현재 소임
참여자 1	35년	총본부 총비서
참여자 2	27년	총원 자료실 책임
참여자 3	14년	총본부 사무국
참여자 4	14년	프랑스 르망교구 선교
참여자 5	12년	국내 본당 소임
참여자 6	11년	가톨릭대학교 학생 (신학과 재학 중)

<표 15> 연구 참여자 특성

내용분석 방법은 신청서 141건을 대상으로 하여 총 6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기록물을 접근하고 검색 할 수 있는 키워드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신청서의 요청 내용 중 2개 이상의 복수의 요청 내용은 각각의 개별화된 요청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평균 1개의 신청서에는 1.14개의 요청사항이 포함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신청서에는 날짜, 요청기관, 자료 분류, 목적, 요청 자료 내용, 비고(기록물 전달 방식) 등의 정보가 기록되어 있으며, 다음의 <그림 4>와 같다.

14) 수도연령 : 수도원에 처음 입회하여 현 시점까지의 기간.

2019-2021년 자료대출 허가 신청서 목록

NO	날짜	요청 기관	자료 분류	목적	요청 자료 내용	비고
1	2019.02.19	오륜대 박물관	사진	전시	설립자 신부님, 마엘, 뿐마엘	사무국 통해 업조요청 함, USB로 전달
1	2019.02.19	오륜대 박물관	사진	전시	윤평중신부님	사무국 통해 업무요청 함, USB로 전달
2	2019.02.19	총원 사무국	사진	행정	광주대교구 세사제 미사 집전	카톡 전송 (감사 인사증)
3	2019.03.04	총원 사무국	사진	전시	쁘로마엘 장례사진(오륜대박물관요청)	메일 전송
4	2019.03.05	원장(안기숙 대례사) 수녀님	사진	전례	구인덕 철레스틴 교묘스 신부님	사진 제의실에 전달 영정용 사진으로 제의실에 보관하여 기일에 사용
5	2019.03.15	마엘암재단	사진	인쇄, 출판	종로 옥인동 축복식	CD로 전달
6	2019.03.21	대월수도원	사진	전례	설립신부님, 마엘, 뿐마엘	메일 전송
6	2019.03.22	대월수도원	사진	전례	정명자 수녀님, 이춘옥 수녀님 사진	메일 전송

〈그림 4〉 2019년~2021년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 목록

4.1.2 1차 범주화

상향식 방법으로 신청서에 연구 참여자들이 부여한 공통 키워드를 추출하여 분류 및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범주화는 “유사한 의미나 종속적인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을 하나의 범주명 아래에 묶는 작업이다”(박도영, 2019 p.47). 연구 참여자들은 이 신청서의 내용을 기반으로 기록물의 접근하거나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부여하였다. 그 결과 총 1,648개의 키워드가 도출되었다. 다음의 〈표 16〉은 연도별 신청서, 기록물 요청사항, 연구 참여자가 부여한 키워드 개수이다.

구분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신청서 (건)	38	51	52	141
기록물 요청사항 (개)	42	62	57	161
연구 참여자가 부여한 키워드 (개)	448	627	554	1,648

〈표 16〉 연도별 신청서, 기록물 요구 및 키워드 건수

이들 키워드 중 동음이의어, 동의어, 유의어 등을 의미적으로 일치하는 고유 키워드 20개를 통일하였다. 예를 들어 창설자와 설립자는 창설자로, 전례

와 총원 전례, 수도원 전례는 모두 전례로 통일하였고, 총원과 본원은 총원으로 통일하였다.

다음으로, 중복되는 키워드를 제거하여 총 253개의 고유 키워드가 추출되었다. 개념어 도출을 위한 키워드 분석 대상으로 2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로 제한하였으며, 총 156개의 개념어가 수집되었다.

수집된 156개의 개념어들을 관련 개념어들과 1차 범주화 작업을 하였으며, 그 결과, 총 25개의 범주가 나타났다. 다음의 표는 1차 범주화 결과 상위개념 어와 빈도수(%), 관련 개념어들을 <표 17>로 정리하였다.

상위 개념어	빈도	정의	관련 개념어
전례	18 (28%)	“교회가 성서나 성전에 의거하여 정식으로 공인한 의식”으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이다. 개인의 신심생활과는 구별되며, 미사, 성사, 준성사, 성무일도 등이 해당(최형락, 2001, p.388).	전례, 성탄, 성주간, 십자가의 길, 종신서원, 장례, 새사제미사, 성금요일, 입회, 위령의 날, 기일, 서원갱신, 미사, 착복식, 시노드, 성좌설립, 축복식, 축성식
회원	9 (14%)	본 수도회인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소속 회원을 뜻하며, 생존회원과 선종회원으로 구분하며, 각 회원이 생산한 기록물도 포함.	회원, 선종회원, 심진순수녀, 양위순 수녀, 오춘희 수녀, 이경애 수녀, 조연이 수녀, 종예반, 회원작품
창설자	9 (14%)	본 수도회의 창설자로써, 공동창설자도 함께 뜻하며, 창설자 영성까지 포함.	창설자, 공동창설자, 창설자 영성, 방유룡신부, 완덕오계, 창설기념일, 강론, 마뗄, 뼈로마뗄
역사	4 (6.2%)	역사는 본 수도회의 역사와 보편교회의 교회사, 민간기록물인 한국역사 또한 포함.	역사, 초창기 역사, 수도회 역사, 교회사
행사	5 (7.8%)	본 수도회에서 행하여지는 행사들로, 연중행사와 연례행사, 특별행사 등이 있으며, 전례와는 구분함.	행사, 본원행사, 금은경축, 환영식, 퇴임식,

상위 개념어	빈도	정의	관련 개념어
미디어	7 (10.9%)	본 수도회에서 창작/제작되는 사진, 영상, 유튜브 등의 기록물로 저작권은 본 수도회에 있으며, 크게 유형으로 범주화 함.	사진, 영정사진, 증명사진, 단체사진, 홍보 사진(영상), 영상, 유튜브
양성	7 (10.9%)	수도회 입회부터 수련기, 서월을 통해 수도자로서 성장하며, 서월 이전의 과정만이 아니라, 수도자의 전 생애를 통해 봉헌 생활을 성장해 가는 수도생활 전 과정을 뜻함. 양성에는 장소의 의미와 활동 모두 포함.	양성, 양성소 소식, 양성 프로그램, 양성과정, 국제양성소, 양성소 수업, 유기서원자
수련	5 (7.8%)	수도회의 입회한 자가 서월을 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뜻하며, 그 기간을 수련기라고 지칭함. 수련자는 이 기간에 수련하는 사람이며, 수련소란 수련자가 수련하는 장소를 뜻함. 수련은 장소적인 의미와 교육 과정, 활동의 의미를 함축(최형락, 2001, p.286).	수련소, 수련학당, 재수련, 수련기, 대착복식
사제	9 (14%)	가톨릭에서 성품성사를 받은 자(신부)로써, 주교로부터 파견받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미사성제를 거행. 본 수도회와 관련이 있는 사제들로 구성되며, 친필, 유품, 사목활동 등의 기록물을 포함(최형락, 2001, p.209).	사제, 동창사제, 구인덕, 상주사제, 새사제, 스가와라 신부, 은인사제, 윤형중 신부, 지학순 주교
출판	6 (9.3%)	본 수도회에서 자체적으로 수행 하는 출판을 말하며, 출판 업무 및 총서, 화보집 등으로 분류.	출판, 인쇄, 총서, 화보집, 논문, 기도서

상위 개념어	빈도	정의	관련 개념어
활동	8 (12.4%)	사도직을 뜻하며, 사도직은 사명, 파견(apostolatus)의 의미로, 수도회의 고유한 성격에 따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헌신하는 것. 본 수도회의 소속 회원들은 총장 수녀의 파견을 통해 사도직을 수행하며, 장소적인 의미와 활동의 의미를 뜻함.	사도직, 마뗄암재단, 강화쉼터, 대월수도원, 재속복자회, 관상생활위원회, 무아공동체, 무아방 유룡영성연구소
총원	5 (7.8%)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총 본부로써, 장소의 의미와 총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및 행사, 일정을 포함.	총원, 총원장, 총원김장, 수도회 소식, 주요일정
총회	9 (14%)	수도회 전체를 대표하는 수도회 내의 최고기관이며, 수도회 전반에 대해 성찰하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최고 권위의 특별기구임. 총장 선출, 안전처리, 법규 제정 등을 수행하는 기구. 총회와 관련된 사항들과, 회의 내용 등이 포함(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2006), 제11권, p.8210.).	총회, 특별총회, 관구총회, 총회로고, 총장선출, 총장이취임식, 확대총평의회, 회헌, 회헌개정
관구	3 (4.6%)	동일한 장상아래 합법적 권리에 의하여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수도원들의 결합(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2006), 제1권,p.526.). 본 수도회의 총원의 관할 아래 있는 행정구역으로 총 2개의 관구와 1개의 준관구로 분류.	수원관구, 미주 준관구, 관구장

상위 개념어	빈도	정의	관련 개념어
순교자 현양	8 (12.4%)	본 수도회의 중요한 카리스마로 신앙을 증거하다 죽은 순교자들을 현양 하여 신앙의 모범을 제시함을 뜻하며, 순교자들의 행적과 신앙을 조사, 연구하며, 교육 및 성지개발 등의 활동을 뜻함(한국가톨릭대사전편찬위원회, (2006), 제8권, p.5164-5166.).	순교자, 순교극, 순교자 현양, 순교성지, 103위 성화, 124위 복자화, 김 대건신부, 새남터성당
선교	5 (7.8%)	파견이란 뜻을 지닌 라틴어로, 세상에 복음전파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선교라고 하며, 이 분류에서는 장소적인 의미와 활동의 의미를 뜻함(최형락, 2001, p.224).	선교, 선교지, 선교사, 프랑스 선교사, 필리핀
피정	5 (7.8%)	일정 기간 동안 일상에서 벗어나 묵상과 자기 성찰기도 등 기도와 수련을 위해 고요한 곳으로 떠남을 뜻함. 본 수도회에서 진행하는 피정과 피정 자료 등의 기록물도 포함(최형락, 2001, p.474).	피정, 월말피정, 피정자료, 연중피정, 월말피정
건물	5 (7.8%)	성당, 수도원 건물, 수도원 부속 건물 등을 모두 포함.	건축, 수도원건물, 유해 경당, 성당, 대홍동(성당)
강의	4 (6.2%)	양성과는 별도의 수업이며, 강의 및 강의 자료까지 포함.	강의, 강의자료, 특강, 심포지엄
인물	3 (4.6%)	본 수도회의 관련이 있는 인물로, 은인들과 직원을 포함.	인물, 본회은인, 직원
행정	4 (6.2%)	총본부의 역할들이며, 활동 및 기구(재단)로 분류.	행정, 서류, 회의, 재단

상위 개념어	빈도	정의	관련 개념어
복식	3 (4.6%)	본 수도회의 수도복과, 전례를 위한 복장으로 구분하며, 본 수도회에서만 착용.	수도복, 복장, 대례복
가족수 도회	2 (3.1%)	창설자가 본 수도회와 함께 창설한 수도회로 총3개의 수도회임(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재속복자회).	가족수도회,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연도	4 (6.2%)	2020년, 2021년, 2019년, 1958년	
기타	9 (14%)	종교시설, 공동체, 친필, 유품, 유물, 문서, 기도, 성물, 십자가	

〈표 17〉 1차 범주화 결과

4.1.3 2차 범주화

1차 범주화의 결과 도출된 25개의 범주로 다시 2차 범주화를 수행하였다. 기능, 조직, 주제의 3가지 구분지는 문헌연구 분석 결과로 도출되었다.

기능은 본 수녀원(총원)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와 업무에 관련된 업무의 결과로 생산되는 기록물들을 의미한다. 조직은 총원(본원)을 제외한(관구, 가족수도회 등) 본 수도의 주요 기관, 혹은 단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록물들로 기관 생산자 중심의 분류기준이다. 주제는 조직의 행위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기록물의 주요한 내용에 따른 분류기준을 말하고, 공통으로 각 기록물들은 유형과 시대구분으로 편철한다. 2차 범주화는 기록물군(Group), 기록물 계열(Series), 기록물파일(File)으로 구성된다.

범주화의 결과로 첫 번째 범주인 기능(수녀회 업무)는 피정, 전례, 양성, 순교자 현양, 총회, 행사, 출판, 선교로 8개의 기능이 포함된다. 피정은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는 묵상과 자기 성찰기도 등의 기도와 수련을 뜻하며, 특히 총원에서 진행되는 피정을 뜻한다. 본 수도회에서 진행하는 피정으로 월말피정,

연말피정, 연중피정으로 분류되고, 피정 자료, 각 피정의 강의록이 포함된다. 전례는 미사와 예식으로 분류되고, 미사에는 입회미사, 종신서원미사, 서원갱신미사 등 주요 미사들이 포함되며, 예식은 성주간,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 착복식 등의 예식이 포함된다. 양성으로는 양성프로그램과 국제양성으로 분류되며, 양성프로그램은 입회, 수련기, 유기서원기 등 양성 과정에 수행되는 프로그램들이고, 국제양성은 해외(동티모르, 미얀마, 베트남)에서 입회한 자매들의 언어 학습을 위한 과정이다. 순교자 현양으로는 순교극이 포함되며, 총회는 총평의회와 특별총회로 구분된다. 관련 기록은 총회의사록, 총회문서, 총회보고서, 총회안건 제의, 총회준비위원회 회의록, 총회준비과정 자료, 총회결의안, 후속작업 등의 생산된다. 행사는 본원행사로, 환영식, 퇴임식, 창설 50주년, 60주년, 70주년 등의 축하식이 포함된다. 출판은 순교의 맥/옥잠화, 총서, 기념화보집 등이 있다. 선교는 지역으로 분류되며, 아시아지역 선교활동, 미주지역 선교활동, 유럽지역 선교활동, 아프리카 지역 선교활동으로 4개 지역으로 분류된다. 생산 기록물로는 선교 지역의 성물, 도서, 생활용품, 일지 등이 있다.

두 번째 범주인 조직(기관/단체)는 창설자와 공동창설자, 관구, 총원소속 수도원, 총본부 소속 사도직, 가족수도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소속 회원, 사제단으로 총 7개의 출처가 포함된다. 창설자와 공동창설자는 본 수도회인 한국순교복자수녀회를 창설한 방유룡 신부, 공동창설자인 마뗄, 빠로마뗄로 구분되며, 일기, 서신, 복장, 강론노트 등이 포함된다. 관구는 수원관구, 대전관구, 미주 준관구 3개가 포함된다. 관구 기록물은 현재 각 관구에서 자체적으로 보관하고 있으며, 아직 총원으로 이관된 기록물은 없다. 총원 소속 수도원은 대월수도원, 로마 성 정하상 바오로 수도원, 프랑스 르망 성녀 소화데레사 수도원, 세네갈 다카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수도원 4개를 포함한다. 총본부 소속 사도직은 종신서원예정반, 자료실, 도서실, 특별회원, 순교의 맥, 북방선교, 전례음악실, 복자장학회, 무아방유룡영성연구소, 무아공동체, 면형사제기도모임, 마뗄암재단 등 총 13개의 사도직이 있으나, 국제양성소와 순교의 맥은 조직이 아닌 기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총 11개의 사도직으로 분류되었다. 가족수도회는 창설자가 본 수도회와 함께 창설한 수도회로써,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

회,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재속복자회 3개가 포함되며, 각 수도회의 회헌, 출판물, 회칙, 논문집 등이 포함된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소속 회원은 생존회원과 선종회원으로 구분되며, 서신, 개인작품, 일기, 성물 등이 포함된다.

사제단은 본 수도회와 관련이 있는 사제들로써 상주사제(본원에 지냈던 사제)와 동창사제(창설자 방유룡 신부님의 동창사제)로 구분되며, 각 신부님들의 도서, 서신, 제의, 성물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 범주인 주제는 순교, 역사, 강의, 인물(개인), 건물, 의복, 성물로 총 7개로 분류되었다.

순교는 순교자, 성지, 성화로 구분되며, 순교자는 순교자 보고서, 학술대회 자료집, 신문 스크랩 등이고, 성지는 성지 보고서, 성지 유물, 성지 관련 책자 등 성지 사도직에서 생성되는 기록물들이다. 성화는 103위 성화와 124위 복자회가 있다. 역사는 수도회 역사와 교회사로 구분된다. 수도회 역사는 역대 수련교재, 회헌, 전례서 등이 포함되며, 교회사는 본 수도회가 아닌 한국 천주교 역사에 관련된 기록물로써 한국천주교창설 200주년 관련자료,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관련자료, 1984년 시성식 관련자료 등이 있다. 강의는 심포지엄과 특강으로 구분되며, 자료집과 강의록이 있다. 인물(개인)으로는 창설자와 공동창설자 주제,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소속 회원 주제으로 구분되며, 창설자 관련하여서는 창설자가 남긴 유품들이 아닌, 본 회원들이 창설자 관련으로 생산한 기록물로써, 창설자 연구논문, 강론·묵상집, 영혼의 빛, 마렐 어록집, 효도 편지 등이 있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소속 회원 주제로는 개인들의 저서, 신문기사 스크랩 등이 있다. 건물은 수도원으로, 본원 성당, 유해경당 등이 있다. 의복은 수도복과 대례복으로 구분된다. 수도복은 본 수도회에서만 착용하는 것으로 역대 수도복과 서원 복장, 서원 망토 등이 있다. 성물은 십자가, 성상류, 제구류 등이 포함된다.

2차 범주화 과정 중 ‘국제양성소’와 ‘순교의 맥’이 1차 범주에서 중복 분류되었다. 국제양성소의 주요 기록물의 내용과 이용자 요구를 종합해 보았을 때, 기능의 사도직 관련 기록보다는 양성자 관련 서류, 수업 프로그램 등 양성 관련 기록이 많고, 기록의 요청도 양성 관련으로 더 많이 있었다. 이에 국

제양성소는 총본부 소속 사도직에 있었지만, 기능의 양성으로 옮기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동하였다.

순교의 맥/옥잠화 또한 1차 범주에서 기능에서의 출판과 조직에서의 총본부 소속 사도직 두 곳에서 중복 분류되었다. 순교의 맥/옥잠화는 본 수도회에서 연1회 출판되는 소식지로서, 출판과 연관된 기록이 많고, 요청사항도 출판 관련이 더 많았으므로, 기능의 출판으로 분류하여 재배치하였다.

1차 범주화와 2차 범주화는 연구자를 제외한 3명의 문헌정보학 전공 연구자에 의해 검토되었고, 2차 범주화 결과는 다음의 <표 18>와 같다.

구분지	기록군 (Group)	기록물계열 (Series)	기록물철(File)
기능 (수녀회 업무)	피정	월말피정	월말피정 강의록, 월말보고서 등
		연말피정	연말피정 강의록, 연말보고서 등
		연중피정	연중 피정 관계 기록
	전례	미사	입회미사 전례서, 입회미사 강론 등
			종신서원미사 예식서, 종신서원 서원문, 종신서원 초대장 등
			서원갱신미사 예식서, 서원갱신문 등
			장례미사 예식서, 장례미사 고별사 등
			창설기념일 미사 예식서, 창설기념일 일정표 등
		예식	금은경축 미사 예식서, 금은경축 전례 일정표 등
			새사제미사 예식서, 새사제 초대장 등
	예식	성주간 예식서, 성주간 일정표 등	
		성금요일 전례서, 성금요일 전례 일정표 등	
		십자가의 길 기도문, 십자가의 길 기도표 등	
		착복 예식서, 서원문 등	

구분지	기록군 (Group)	기록물계열 (Series)	기록물철(File)
기능 (수녀회 업무)	양성	양성프로그램	입회 관련 서류, 지원자 교육 교재 등
			수련기 교육 교재, 수련학당 관련 문서 등
			유기서원기 활동 보고서, 유기서원 월말보고서 등
			종신서원기 교육 프로그램 일정표, 종신서원자 관련 모임 문서 등
		국제양성	국제양성소 관련 문서, 어학당 관련 서류 등
	순교자 현양	순교극	순교극 대본, 순교극 포스터, 순교극 소품, 복장 등
	총회	총평의회	총회 관련 문서, 대의원회의 문서 등
			총회보고서, 총회 기도문 등
		특별총회	특별 총회문서, 특별 총회 기도문, 특별 총회 일정표 등
	행사	환영식	각종 환영식 포스터, 일정표 등
		퇴임식	퇴임식 식순, 퇴임식 사진 등
		축성식	축성식 예식서, 축성식 일정표, 기념품
		축복식	수도원 축복식 예식서, 축복식 관련 문서 등
		창설50주년 축하식	50주년 축하식 예식서, 50주년 축하식 일정표, 기념품 등
		창설60주년 축하식	60주년 축하식 예식서, 60주년 축하식 일정표, 봉헌물 등
		창설70주년 축하식	70주년 축하식 예식서, 70주년 기념 봉헌물 등
		순교의 맥 /옥잠화	1959년 1호~1975년 175호까지 옥잠화 출간되었고, 10년간 휴재 후 순교의 맥으로 제목 변경 후 1985년 176호부터 다시 재출간되어 현재 220호까지 출간됨

구분지	기록군 (Group)	기록물계열 (Series)	기록물철(File)
기능 (수녀회 업무)	선교	총서	1권 무아 방유룡 영성 학술 논문집 등 10권까지 면형무아총서
		기념화보집	창설자 100주년 화보집, 25주년 화보집 등
		리플릿	등불 리플릿, 재속복자회 리플릿, 선교 지역 리플릿 등
		본회원 논문	본회원 석사, 박사 논문 등
		아시아 지역 선교활동	베트남 성모상, 필리핀 구유 등 성물류
			미얀마 성경, 베트남 성경 등 도서류
			동티모르 가방, 미얀마 액자 등 생활용품 등
		미주 지역 선교활동	멕시코 성모상, 십자가 등 지역 성물관련
			미국 성경, 기도서 등 지역 관련 도서
			멕시코 그릇, 액자, 카펫 등 생활용품 관련 기록물
			미국, 폐루, 멕시코 일지 관련 기록 등
		유럽 지역 선교활동	이탈리아 구유, 성모상 등 성물 관련 기록
			이탈리아 기도서, 성경 등 도서 관련 기록
			이탈리아 식탁보, 가방 등 생활용품 관련
		아프리카 지역 선교활동	세네갈 성모상, 십자가 등 성물 관련
			세네갈 천, 그릇, 기념품 등 생활용품 관련
조직 (기관/ 단체)	창설자와 공동창설자	방유룡 신부	방유룡 신부 일기, 친필 기도서 등
			방유룡 관련 수발신 서신 등
			방유룡 제의, 수단 등 복장류
			방유룡 신부 십자가, 묵주 등 성물류

구분지	기록군 (Group)	기록물계열 (Series)	기록물철(File)
조직 (기관/ 단체)	창설자와 공동창설자	마뗄	방유룡 신부 전지가위, 묵주재료 등 생활용품 관련
			마뗄 순교의 맥 원고, 피정 노트 등
			여젬마 수녀 수신 마뗄 친필 서신 등
			마뗄 수도복, 벨륨 등
			마뗄 성모상, 십자가 등 성물
			마뗄 침구류, 노트 등 생활용품
		쁘로마뗄	마뗄 작성 창설자 강론노트
			쁘로마뗄 일기, 메모 등
			쁘로마뗄 수발신 서신류
			쁘로마뗄 복장, 벨륨 등
	관구	수원	수원관구 설립 문서 등
		대전관구	대전관구 설립 문서 등
		미주 준관구	미주 준관구 설립 문서 등
	총원 소속 수도원	대월수도원	설립 문서, 대월수도원 사진첩 등
		로마 성 정하 상 바오로 수 도원	로마 성 정하상 바오로 수도원 교령선포 등
		르망 성녀 소화데 레사 수도원	르망 성녀 소화데레사 수도원 교령선포 등
		다카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수 도원	다카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수도원 교령선포 등
		종예반	종예반 일지, 종신서원 청원문 등

구분지	기록군 (Group)	기록물계열 (Series)	기록물철(File)
조직 (기관/ 단체)	총본부 소속 사도직		종예반 서교체험 보고서, 영신수련 보고서 등
		자료실	자료실 업무 일지, 자료실 비품목록등
			소장기록물 목록, 수장고 관리내역 등
			전시 목록, 전시 리플렛 등
		도서실	소장 도서목록, 도서기증 관계서류 등
		특별회원	특별회원 목록, 특별회원증 등
		북방선교	북방선교 일지, 여명의 집 관련서류등
			북한 학술대회 자료, 민족화해위원회 관련 서류 등
			북한방문 기념품, 북한 소개CD 등
		전례음악실	전례 악보, 전례 일정표 등
		복자장학회	복자장학증서, 복자장학생 관련 서류 등
		무아공동체	무아공동체 일지, 노년기 프로그램 등
		무아방유룡영 성연구소	회기별 심포지엄 자료집, 창설자 기일 관련 프로그램 등
		면형사제기도 모임	면형사제기도모임 월보, 면형사제기도 모임 회원증 등
			면형사제 기도모임 회원 문집, 리플릿 등
		마뗄암재단	마뗄암 재단 관련 문서, 신문 보도자료 등
			마뗄암재단 사진첩, 창립 기념품 등
			마뗄암재단 리플릿, 관련 출판도서 등
	가족수도회	성직수도회	성직수도회 회헌, 역대 기도서 등
			50년사, 관련 출판물 등
			성직 수도회 회원 논문, 성직수도회 주체 심포지엄 자료집 등

구분지	기록군 (Group)	기록물계열 (Series)	기록물철(File)
조직 (기관/ 단체)	가족수도회	빨마수녀회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관련 사진첩, CD 등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회헌, 지침서 등
			소식지(메아리), 기념화보집 등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사진첩 등
		재속복자회	재속복자회 월보, 재속복자회 기념 문집 등
			구역모임일지, 월례 모임 일지, 방명록 등
			재속복자회 회칙, 양성기 회원증 등
			역대 복장(한복), 성의 등
			창설 기념품, 성지순례 기념품 등
	한국순교복 자수녀회 소속 회원	생존회원	생존회원 서신 등
			생존회원 개인작품, 전시 작품 등
			생존회원 일기
			생존회원 피정노트
		선종회원	선종회원 기도서
			선종회원 일기
			선종회원 서신
			선종회원 복장
			선종회원 성물
	사제단	상주사제	상주사제 저서 등
			본 회원 발신 서신
			구인덕 신부 십자가 등
			상주사제 제의, 장백의 등
			상주사제 사진첩
		동창사제	사말의 노래 등 동창사제 저서 등
			본 회원 발신 서신

구분지	기록군 (Group)	기록물계열 (Series)	기록물철(File)
주제	사제단		윤령중 신부 묵주, 성모상 등 상주사 제 성물류
			윤령중 신부 제의, 카파 등
			동창사제 사진첩
	순교	순교자	순교자 발표 보고서, 유해 안치식 관련 박물류 등
			포도청 옥사, 순교 학술대회 등
			보도자료
			면형강학회 기념 문집, 성지순례 자료집 등
		성지	솔뫼 성지, 오륜대성지 리플릿 등
			성지 관련 도서 등
	역사	성화	성지 관련 보고서
			성지 관련 유물
		수도회 역사	103위 성화
			124위 복자화
			수련학, 은사론, 완덕총론 등 수련교재
	교회사	교회사	통경기구, 신공절요 등 기도서
			예전, 수도서원 예식서 등 전례(예식)서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역대 보도자료
			1958년 서원 반지, 서원 화관 등
			성헌, 회칙, 회현 등
			1984년 종신 서원 초대장 등
			한국천주교창설200주년 도록, 기념품 등 관련 기록
			김대건신부순교150주년 기념도서, 보도자료 등 관련 기록

구분지	기록군 (Group)	기록물계열 (Series)	기록물철(File)
주제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배지, 보도자료, 예식서 등 관련 기록
			1984 시성식 입장권, 예식서, 성물, 보도자료, 포스터 등 관련 기록
			2014 시복식 예식서, 보도자료, 포스터 등 관련 기록
	강의	심포지엄	심포지엄 자료집, 일정표, 기념품 등
		특강	특강 강의록
	인물(개인)	창설자와 공동창설자 주제	본 수도회 회원 작성 연구논문, 학술지 등
			1968년 첫서원 강론집, 1958년 묵상집 등
			영혼의 빛(창설자 강론 모음집), 무아의 향기 등 창설자 관련 도서
			마뗄 어록집
			창설자께 드리는 효도 편지 213편
	한국순교복자 수녀회 소속 회원 주제		황옥연 수녀 동시집, 유은희 수녀 한역서학서 번역집 등 본 회원 출판 저서
			보도자료
	건물	본원 성당	본원 성당 제단, 제의실 등
		유해 경당	제대 등
	의복	수도복	역대 수도복, 벨륨, 빨라움 등
			서원 복장, 서원 망토, 화관 등
		대례복	대례복, 족두리, 댕기 등
	성물	제구	본원 사용 십자가, 십자가의 길 등
			성모상, 성요셉, 성인성녀상 등
			향합, 향로, 성수채, 점등기 등

<표 18> 2차 범주화 결과

4.2 기존 분류표와 매핑과 시사점

2차 범주화 후, 반영되지 못한 보존기록의 체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기존의 분류표와 본 연구에서 2차 범주화로 도출된 정리체계 개선안을 비교·분석하였다. 기존의 분류표는 현재 소장된 기록물들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11개의 대분류로 구성되었으며, 비교분석은 두 분류표의 대분류와 중분류를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기존의 분류표는 새로운 정리체계에 모두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고, 크게 정리체계가 변경된 것은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분류 기준에 따른 새로운 분류 체계의 도출, 두 번째 정리를 위한 분류체계의 변경, 세 번째 분류 수준의 변경, 마지막 네 번째로 중복분류의 재분류로 정리하였다.

① 새로운 분류 체계의 도출(대분류)

기존의 분류표와 정리체계 개선안을 비교했을 때, 새롭게 도출된 5개의 대분류는 다음과 같다. 기능에 해당하는 분류 기준으로 순교자 현양, 피정, 전례, 양성의 대분류가 새롭게 도출되었다. 순교자 현양은 중분류로 순교극으로 분류되며, 순교극 대본, 순교극 포스터, 순교극 소품, 복장 등을 포함하고 있다. 피정은 월말피정, 연말피정, 연중피정으로 분류되며, 월말 피정 강의록, 월말 보고서, 연말 피정 강의록, 연말 보고서, 연중 피정 관계 기록을 포함한다. 전례는 미사와 예식으로 분류되며, 미사는 입회미사 관련 기록, 종신서원 미사 관련 기록 등의 미사들과 관련 기록물이 포함되며, 예식은 미사를 제외한 신심행위로 성주간 예식서, 십자가의 길 기도문 등의 기록물이 포함된다. 양성은 양성 프로그램과 국제양성으로 분류되며, 양성 프로그램은 입회 관련 서류, 수련기 교육 교육 교재 등의 기록물이 포함된다.

주제에 해당하는 분류 기준은 강의 대분류가 도출되었다. 강의는 심포지엄과 특강으로 분류되며, 심포지엄 자료집과 특강 강의록을 포함하고 있다.

② 정리를 위한 분류체계 변경

옥잠화와 순교의 맥은 기존 분류표의 대분류인 본회 간행물에서 개선안에

서는 기능 분류의 출판으로 변경되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분류표에서는 옥자화와 순교의 맥만 따로 본회 간행물로 분류하고, 나머지 출판물들은 다른 분류체계로 되어 있어서 검색이 쉽지 않았다. 새로운 정리체계 안에서는 출판이라는 기능으로 묶으면서 다른 모든 출판물들과 함께 분류되어 이용자의 검색이 용이하도록 변경하였다.

역대 수도복은 기존 분류표의 대분류인 본회 역사에서 개선안에서는 주제 분류의 대분류 의복 아래 중분류 수도복, 세분류 역대 수도복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의 분류표에서는 대분류인 본회 역사 안에 역대 수도복과 기도서, 전례서 등이 모두 함께 분류되어 있어서 기록물의 주제와 유형이 혼재되어 검색의 어려움이 있었다. 새로운 개선안에서는 대분류인 의복 안에 역대 수도복으로 별도 분류하여, 이용자의 검색의 편의를 제공한다.

자치분원은 기존의 분류표의 대분류 사도직에서 개선안에서는 조직 분류의 대분류인 총원 소속 사도직과 관구로 변경되었다. 기존의 사도직은 자치분원, 파견분원, 철수분원, 선교지 총 4개의 중분류를 포함하고 있어서 기록물의 양이 많아서 분류 및 검색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자치분원을 개선안에서는 사도직 중에서 총본부 소속 사도직 11개와 관구로 별도 분류하여, 검색의 효율성을 높였다.

선교지는 기존의 분류표 대분류인 사도직에서 개선안에서는 조직 분류의 대분류인 총원 소속 수도원과 관구로 변경되었다. 기존의 사도직이 모든 선교지를 포함하고 있었다면, 개선안에서는 총원 소속인 이탈리아 로마 성 정하상 바오로 수도원, 프랑스 르망 성녀 소화데레사 수도원, 세네갈 다카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수도원만 따로 정리하였다. 다른 선교지는 관구 소속이므로, 각 관구의 수도원 및 분원으로 정리되었다.

성물은 기존의 분류표에서 대분류인 전례, 중분류인 전례용품에서 정리체계 개선안에서는 주제 분류의 대분류 성물, 중분류인 제구로 분류 이동되었다. 상주사제는 기존의 분류표 대분류인 역사, 중분류에서 본회 역사 관련, 세분류로 상주사제와 동창사제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개선안에서는 조직 분류 아래 대분류 사제단로 분류 이동되어 중분류 상주사제로 분류 수준 또한 변화하였다. 이는 기존의 분류체계에서는 본회 역사 관련인 중분류 아래 세분류로

본회 관련 신문기사 스크랩, 역대 서원관련, 생활용품, 자치분원 관련 등이 함께 분류되어, 유형도 혼재되어 있고, 기록물의 양도 많았기에, 새로운 개선안에서는 상주사제를 중분류로 변경하였다.

동창사제는 기존의 분류표에서 대분류인 창설자로 분류되었지만, 개선안에서는 주제 분류 아래 대분류인 사제로 분류가 변경되었다. 창설신부님의 동창신부님이지만, 기본적으로 사제이고, 한 명이 아닌 다수이므로, 새로 분류하는 것이 검색과 정리에 용이하다고 판단하였다.

순교자와 성지는 기존의 분류표에서 대분류 역사, 중분류 교회 관련 역사에서 세분류로 순교자와 성지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개선안에서는 주제 분류 아래 대분류 순교, 중분류로 순교자와 성지, 성화가 분류되었다. 기존의 분류표에서는 교회 역사 관련에서 한국천주교 교회사 관련된 행사들과 함께 분류되어 기록물의 분류가 어려웠다. 이에 개선안에서는 주제 분류로 순교를 대분류로 지정하여, 순교자와 성지의 기록물 검색을 용이하게 변경하였다.

역대 회헌, 역대 기도서, 역대 수령교재, 역대 전례(예식)서는 기존의 본회 역사로 분류되었으나, 개선안에서는 대분류 역사, 중분류 수도회 역사, 그 아래 세분류로 분류되었다. 이는 본회 역사 외에 다른 역사적 기록물도 함께 분류가 되어있었기에, 수도회 역사만 따로 분리하여 정리와 검색의 효율을 높이 고자 하였다. 또한 분류 수준도 중분류에서 세분류로 변경되었다.

자치분원 관련 기록물은 기존의 대분류 역사, 중분류 본회 역사 관련, 세분류 자치분원 관련으로 되어 있었으나, 개선안에서는 관구별로 분류하여, 대분류 관구, 중분류로 대전관구, 수원관구, 미주 준관구로 변경하였다.

③ 분류수준(depth)의 변경

‘사제’는 전체 요청사항 중 14%를 차지하고 있다. 상주사제는 기존의 분류표에서는 세분류에 위치했었지만, 개선안에서는 중분류로 분류수준이 변경되었다. 기존 분류표의 창설자 대분류 아래 중분류 창설신부님, 세분류로 복식, 제구 등이 있었지만, 개선안에서는 주제 분류로, 대분류 창설자 주제, 중분류로 영혼의 빛 등으로 분류수준이 변경되었다. 이는 해당 기록물에 대한 이용 요구와 관련 기록물도 많은데, 현재 분류체계에서는 세분류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중분류로 분류 수준을 변경하고 소장 기록물들을 다시 한 번 세부 주제로 분류하여 이용자가 각각의 이용 요구에 맞춰 기록물들을 검색할 수 있게 하였다.

창설자 제의는 기존의 분류표에서 대분류 창설자, 중분류 제의로 분류했으나, 개선안에서는 대분류 창설자, 중분류 방유룡, 세분류 제의로 분류하였다. 사도직의 자치분원, 파견분원, 철수분원 또한 기존의 분류표에서는 사도직 대분류 아래 중분류였으나, 개선안에서는 관구와 총원소속 사도직, 총원 소속 수도원으로 분류체계도 변경되었고, 분류 수준 또한 중분류에서 세분류로 변경되었다. 이는 기존의 분류표에 여러 기록물들이 혼재되어 있어 검색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선안에서는 세분류로 한번 더 분류하여 정리와 검색에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④ 중복분류의 재분류

현재 주제로 분류된 기록물은 조직의 행위와 수반된 기록물과 함께 행위와 관계없이 기록물의 내용상 주제적 분류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분류표에서는 대분류의 창설자, 중분류의 창설신부님, 공동창설자 마뗄, 뿐마뗄로 분류되었고, 기록물들은 창설자의 일기, 서신, 수도복, 창설자 연구 논문, 강론집 등이 혼재되어 분류되어 있다. 이를 정리체계 개선안에서는 명확한 정리기준에 의해서 조직으로 분류되는 창설자와 공동창설자 대분류로 창설자가 생산한 일기, 서신, 수도복 등의 기록물과, 주제로 분류되는 창설자와 공동창설자 주제 대분류 아래로 창설자 연구 논문, 강론집, 효도 편지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기존의 분류표에서 대분류 회원은 중분류의 선종회원과 생존회원으로 분류되며, 세분류도 회원 개인 서신, 개인작품, 일기, 성물, 신문기사, 출판물 등이 혼재되어 분류되어 있다. 이를 정리체계 개선안에서 조직으로 분류되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소속 회원의 서신, 개인작품, 일기 등과 주제의 대분류 인물(개인)의 중분류인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소속 회원 주제, 세분류로 신문기사, 출판물 등으로 분류하였다.

옥침화와 순교의 맥은 대분류의 본회 간행물로 따로 분류되어 있었으나,

개선안에서는 옥잠화, 순교의 맥을 함께 분류하였다. 이는 1959년부터 1975년까지 옥잠화가 출간되었고, 10년간의 휴재 후 1985년부터 현재까지 순교의 맥으로 제목이 변경되어 계속 출간을 이어가고 있기에, 함께 분류하는 것으로 재분류 하였다. 이는 옥잠화나 순교의 맥 중 한 개의 검색어로만 검색하여도 변천 과정을 모두 알 수 있도록 재분류하였다.

기존의 분류표와 현재의 개선안에서 변동이 없는 범주는 대분류 ‘가족수도회’와 ‘선교(박물류 중심)’였다.

기존 분류표와의 비교,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면 〈표 19〉과 같다.

기존의 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	정리체계 개선안 (대분류>중분류)	변경 내용
회원 > 명부류	한국순교복자수녀회소속회원 > 생존회원 > 명부 > 선종회원 > 명부	- 분류수준 변경 (중분류→세분류)
본회간행물 > 옥잠화	출판 > 순교의 맥 / 옥잠화	- 재분류
본회간행물 >순교의 맥		- 분류체계 변경 (본회간행물→출판)
본회역사>역대 회헌 역대 수련교재 역대 전례(예식)서	역사>수도회 역사>회헌 역사>수도회 역사>수련교재 역사>수도회역사>전례(예식) 서	- 분류체계 변경 (본회역사→역사). - 분류수준 변경 (중분류→세분류)
본회역사>역대 수도복	의복>수도복>역대수도복	- 분류체계 변경 (본회역사→의복) - 분류수준 변경 (중분류→세분류)
사도직>자치분원	- 관구>대전관구 >수원관구 >미주 준관구 - 총본부 소속사도직>13개 개별사도직	- 분류체계 변경 (사도직→ 총본부 소속사도직) (사도직→관구)
사도직>선교지	- 관구>대전관구>선교지 >수원관구>선교지 - 총원 소속 수도원 >로마 성 정하상 바오로	- 분류체계 변경 (사도직→ 총본부 소속사도직) (사도직→관구)

기존의 분류체계 (대분류>중분류)	정리체계 개선안 (대분류>중분류)	변경 내용
	수도원 >르망 성녀 소화데레사 수도원 >다카르 성 김대건 안드 레아 수도원	
전례>전례용품	성물>제구	- 분류체계 변경 (전례→ 성물)
역사>본회역사관련 >상주사제	사제단>상주사제	-분류체계 변경 (역사→사제단) - 분류수준 변경 (세분류→중분류)
역사>교회 역사 관련	순교>순교자 순교>성지	-분류체계 변경 (역사→순교)
창설자> 창설신부님 공동창설자 마뗄, 뿐로마뗄	(조직)창설자와 공동창설자 >방유룡신부 >마뗄 >뿐로마뗄 (주제)인물(개인) >창설자와 공동창설자 주제	- 재분류 - 분류체계 변경 (창설자→인물(개인))
회원 >선종회원 생존회원	(조직)한국순교복자수녀회 소속 회원 >선종회원, >생존회원 (주제)인물(개인)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소속 회원 주제	- 재분류 - 분류체계 변경 (회원→인물(개인))
	순교자 현양>순교극	새롭게 추가
	강의>심포지엄/특강	새롭게 추가
	피정>월말, 연말, 연중피정	새롭게 추가
	전례>미사/ 예식	새롭게 추가
	양성>양성프로그램 >국제양성	새롭게 추가

〈표 19〉 기존 분류표와 비교·분석

V. 정리체계 개선안

5.1 정리를 위한 분류체계 개선안

내용분석을 기반으로 1차 범주화의 결과 2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고, 2차 범주화를 수행하여 정리체계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이 정리체계 개선안은 크게 3개의 구분지(기능, 조직, 주제)로 하고, 그 아래 기록물군(Group), 기록물 계열(Series)로 기록물파일(File)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기능은 본 수녀원(총원)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와 관련된 업무의 결과로 생산되는 기록물들을 정리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조직은 총원(본원)을 제외한(관구, 가족수도회 등) 본 수도회의 주요 기관과 단체에서 생산하여 이관된 보존기록들을 생산자를 중심으로 정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주제는 조직의 행위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기록물의 주요한 내용에 따른 정리 기준을 말한다. 3개의 구분지 아래 분류된 기록물은 유형과 시대구분으로 편철한다.

기존의 분류표는 주제 분류로 되어 있었지만,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록물 정리와 검색, 이용자 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기준을 구분지와 기록물군(Group), 기록물계열(Series)로 기록물파일(File)의 구조로 새롭게 수정, 보완하여 소장기록물의 정리와 이용자 검색에 용이하도록 분류체계를 개선하였다.

첫 번째 범주인 기능(수녀회 업무)는 피정, 전례, 양성, 순교자 현양, 총회, 행사, 출판, 선교로 8개의 기능이 포함된다. 두 번째 범주인 조직(기관/단체)은 창설자와 공동창설자, 관구, 총원소속 수도원, 총본부 소속 사도직, 가족수도회,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소속 회원, 사제단으로 총 7개의 출처가 포함된다. 세 번째 범주인 주제는 순교, 역사, 강의, 인물(개인), 건물, 의복, 성물로 총 7개로 주제로 정리되었으며, 각 기록물군 아래 하위 기록물 계열과 기록물 파일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기록물의 정리와 기술에 용이함과 이용자에게는 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 가이드로써의 활용할 수 있다. 정리체계 개선안과 기존의 분류표의 최종 매핑을 통하여 새롭게 도출된 대분류와 기존의 분류표의 변화를 정리하여 다음의 <표 20>로 제시하였다.

구분지	기록군 (Group)	설명	기록물계열(Series)	기록물철(File)	
기능 (수녀회 업무)	피정	일정 기간 일상에서 벗어나 기도와 수련을 할 수 있는 고요한 곳으로 물러남을 뜻 함. 본 수도회에서 진행하는 피정과 피정 자료 등의 기록물도 포함	월말피정	월말 피정 강의록, 월말보고서	
			연말피정	연말 피정 강의록, 연말보고서	
			연중피정	연중 피정 관계 기록	
	전례	교회가 성서나 성전에 의거 하여 정식으로 공인한 의식으로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 전례는 공적 예배인 미사(미사, 성사 등)와 개인의 신심생활인 예식(성무일도, 십자가의 길 등)으로 구분	미사	입회미사 전례서, 입회미사 강론 등	
				종신서원미사 예식서, 종신서원 서원문, 종신서원 초대장 등	
				서원갱신미사 예식서, 서원갱신문 등	
				장례미사 예식서, 장례미사 고별사 등	
				창설기념일미사 예식서, 창설기념일 일정표 등	
				금은경축 미사 예식서, 금은경축 전례 일정표 등	
				새사제미사 예식서, 새사제 초대장 등	
	예식		예식	성주간 예식서, 성주간 일정표 등	
				성금요일 전례서, 성금요일 전례 일정표 등	
				십자가의 길 기도문, 십자가의 길 기도표 등	
				착복 예식서, 서원문 등	

구분지	기록군 (Group)	설명	기록물계열(Series)	기록물철(File)
기능 (수녀회 업무)	양성	수도회 입회부터 수련기, 서원을 통해 수도자로서 성장하며, 서원 이전의 과정만이 아니라, 수도자의 전 생애를 통해 봉헌 생활을 성장해 가는 수도생활 전 과정을 뜻함. 양성에는 장소의 의미와 활동 모두 포함.	양성프로그램	입회 관련 서류, 지원자 교육 교재 등
				수련기 교육 교재, 수련학당 관련 문서 등
				유기서원기 활동 보고서, 유기서원 월말보고서 등
				종신서원기 교육 프로그램 일정표, 종신서원자 관련 모임 문서 등
				재수련 프로그램, 재수련 일정표 등
	순교자 현양		국제양성	국제양성소 관련 문서, 어학당 관련 서류
총회	순교극	본 수도회의 중요한 카리스마로 신앙을 증거하다 죽은 순교자들을 현양 하여 신앙의 모범을 제시함을 뜻함.	순교극	순교극 대본, 순교극 포스터, 순교극 소품, 복장 등
				총회 관련 문서, 대의원회의 문서 등
				총회 보고서, 총회 기도문 등
			총평의회	총회 결의문, 총회 준비문서 등
				특별총회
				특별 총회문서, 특별 총회 기도문, 특별 총회 일정표 등

구분지	기록군 (Group)	설명	기록물계열(Series)	기록물철(File)
기능 (수녀회 업무)	행사	본 수도회에서 행하여지는 행사들로, 연중행사와 연례 행사, 특별행사 등이 있으며, 공적 예배인 전례와는 구분	환영식	각종 환영식 포스터, 일정표 등
			퇴임식	퇴임식 식순, 퇴임식 사진 등
			축성식	축성식 예식서, 축성식 일정표, 기념품 등
			축복식	수도원 축복식 예식서, 축복식 관련 문서 등
			창설50주년축하식	50주년 축하식 예식서, 50주년 축하식 일정표, 기념품 등
			창설60주년축하식	60주년 축하식 예식서, 60주년 축하식 일정표, 기념품 등
			창설70주년축하식	70주년 축하식 예식서, 70주년 축하식 일정표, 기념품, 봉헌물 등
	출판	본 수도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출판을 말하며, 출판 업무 및 총서, 화보집 등으로 분류	순교의 맥/옥잠화	1959년(1호)~1975년(175호) '옥잠화' 출간 1985년(176호)부터 '순교의 맥'변경 후 재출간하여, 현재 220호까지 출간됨
			총서	1권 무아 방유룡 영성 학술 논문집 등 10권 까지 면형무아총서
			기념화보집	창설자 100주년 화보집, 25주년 화보집 등
			리플릿	등불 리플릿, 재속복자회 리플릿, 선교지역 리플릿 등
			본 회원 논문	본 회원 석사, 박사 논문 등

구분지	기록군 (Group)	설명	기록물계열(Series)	기록물철(File)
기능 (수녀회 업무)	선교	파견이란 뜻을 지닌 라틴어로, 세상에 복음전파를 위해 수행하는 사업을 선교라고 하며, 이 분류표에서는 장소적인 의미와 활동의 의미를 함께 뜻함	아시아 지역 (필리핀, 동티모르, 미얀마, 베트남) 선교활동	베트남 성모상, 필리핀 구유 등 성물 관련 미얀마 성경, 베트남 성경 등 관련 도서 동티모르 가방, 미얀마 액자 등 생활용품 등
			미주 지역 (미국, 페루, 멕시코) 선교활동	멕시코 성모상, 십자가 등 지역 성물 관련 미국 성경, 기도서 등 지역 관련 도서 멕시코 그릇, 액자, 카펫 등 생활용품 관련 기록물 미국, 페루, 멕시코 선교 일지 관련 기록
			유럽 지역 (이탈리아, 프랑스) 선교활동	이탈리아 구유, 성모상 등 성물 관련 기록 이탈리아 기도서, 성경 등 도서 관련 기록 이탈리아 식탁보, 가방 등 생활용품 관련
			아프리카 지역 (세네갈) 선교활동	세네갈 성모상, 십자가 등 성물 관련 세네갈 천, 그릇, 기념품 등 생활용품 관련
조직 (기관/단체)	창설자와 공동창설 자		방유룡 신부	방유룡 신부 일기, 친필 기도서 등 방유룡 관련 수발신 서신 등

구분지 (기관/단체)	기록군 (Group)	설명	기록물계열(Series)	기록물철(File)
	창설자와 공동창설자	<p>본 수도회의 창설자로써, 방유룡 신부와 함께 공동창설자(마뗄, 뼈로마뗄)도 함께 지칭함</p> <p>창설자와 공동창설자가 생산한 기록을 뜻하며, 또한 창설자 영성까지 포함</p>	<p>마뗄</p> <p>뼈로마뗄</p>	<p>방유룡 제의, 수단 등 복장류</p> <p>방유룡 신부 십자가, 묵주 등 성물류</p> <p>방유룡 신부 전지가위, 묵주재료 등 생활용품 관련</p> <p>마뗄 순교의 맥 원고, 피정 노트 등</p> <p>여菹마 수녀 수신 마뗄 친필 서신 등</p> <p>마뗄 수도복, 벨룸 등</p> <p>마뗄 성모상, 십자가 등 성물</p> <p>마뗄 침구류, 노트 등 생활용품</p> <p>마뗄 작성 창설자 강론노트</p> <p>뼈로마뗄 일기, 메모 등</p> <p>뼈로마뗄 수발신 서신류</p> <p>뼈로마뗄 복장, 벨룸 등</p> <p>뼈로마뗄 성모상, 십자가, 묵주 등 성물류</p> <p>뼈로마뗄 바느질 세트, 라디오 등 생활용품</p> <p>뼈로마뗄 친필 창설자 강론노트</p>

구분지	기록군 (Group)	설명	기록물계열(Series)	기록물철(File)	
조직 (기관/단체)	관구	동일한 장상아래 합법적 권위에 의하여 교회법적으로 설립된 수도원들의 결합	수원관구	수원관구 설립 문서 등	
			대전관구	대전관구 설립 문서 등	
			미주 준관구	미주 준관구 설립 문서 등	
	총원 소속 수도원	해외분원 중 관구에 속하지 않는 총원소속 해외 수도원과 본 수도회의 관상부인 대월수도원을 포함	대월수도원	설립 문서, 대월수도원 사진첩 등	
			로마 성 정하상 바오로 수도원	로마 성 정하상 바오로 수도원 교령선포 등	
			르망 성녀 소화데레사 수도원	르망 성녀 소화데레사 수도원 교령선포 등	
			다카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수도원	다카르 성 김대건안드레아 수도원 교령선포 등	
			종신서원예정반 (종예반)	종예반 일지, 종신서원 청원문 등 종예반 선교체험 보고서, 영신수련 보고서등	
	총본부 소속 사도직	각 관구에 속하지 않고, 총본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도직으로 주로 총원에 사무실을 두고 있음.	자료실	자료실 업무 일지, 자료실 비품목록 등 소장기록물 목록, 수장고 관리 내역 등 전시 목록, 전시 리플렛 등	
				도서실	소장 도서목록, 도서 기증 관계 서류 등
				특별회원	특별회원 목록, 특별회원증 등

구분지	기록군 (Group)	설명	기록물계열(Series)	기록물철(File)
조직 (기관/단체)	총본부 소속 사도직		북방선교	북방선교 일지, 여명의 집 관련서류 등
				북한 학술대회 자료, 민족화해위원회 관련 서류 등
				북한방문 기념품, 북한 소개CD 등
			전례음악실	전례 악보, 전례 일정표 등
			복자장학회	복자장학증서, 복자장학생 관련 서류 등
				무아공동체 일지, 노년기 프로그램 등
			무아 방유룡영성연구소	회기별 심포지엄 자료집, 창설자 기일 관련 프로그램 등
				면형사제기도모임 월보, 면형사제기도모임 회원증 등
			마뗄암재단	면형사제 기도모임 회원 문집, 리플릿 등
				마뗄암 재단 관련 문서, 신문 보도자료 등
				마뗄암재단 사진첩, 창립 기념품 등
				마뗄암재단 리플릿, 관련 출판 도서 등

구분지	기록군 (Group)	설명	기록물계열(Series)	기록물철(File)
조직 (기관/단체)	가족 수도회	창설자가 본 수도회와 함께 창설한 수도회로 총3개의 수도회임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재속복자회).	성직수도회	성직수도회 회헌, 역대 기도서 등
				50년사, 관련 출판물 등
				성직 수도회 회원 논문, 성직수도회 주체 심포지엄 자료집 등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관련 사진첩, CD등
			한국순교복자빨마 수녀회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회헌, 지침서 등
				소식지(메아리), 기념화보집 등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사진첩 등
			재속복자회	재속복자회 월보, 재속복자회 기념 문집 등
				구역모임일지, 월례 모임 일지, 방명록 등
				재속복자회 회칙, 양성기 회원증 등
				역대 복장(한복), 성의 등
				창설 기념품, 성지순례 기념품 등

구분지	기록군 (Group)	설명	기록물계열(Series)	기록물철(File)
조직 (기관/단체)	한국순교 복자수녀 회 소속 회원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소속 회원을 뜻하며, 생존회원과 선종회원으로 구분하며, 각 회원이 생산한 기록.	생존회원	생존회원 서신 등
				생존회원 개인 작품, 전시 작품 등
				생존회원 일기
				생존회원 피정노트
			선종회원	선종회원 기도서
				선종회원 일기
				선종회원 서신
				선종회원 복장
				선종회원 성물
	사제단	가톨릭에서 성품성사를 받은 자(신부)로써, 주교로부터 파견 받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미사성제를 거행. 본 수도회와 관련이 있는 사제들로 구성되며, 상주사제는 본 수도회에서 상주하였던 사제이며,	상주사제	나의 북한 포로기 등 상주사제 저서 등
				본 회원 발신 서신
				구인덕 신부 십자가 등
				상주사제 제의, 장백의 등
				상주사제 사진첩

구분지	기록군 (Group)	설명	기록물계열(Series)	기록물철(File)			
	사제단	동창신부는 창설자인 방유룡 신부의 동창을 뜻함	동창사제	사말의 노래 등 동창사제 저서 등 본 회원 발신 서신 윤형중 신부 묵주, 성모상 등 상주사제 성물류 윤형중 신부 제의, 카파 등 동창사제 사진첩			
주제	순교	신앙을 증거 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으로, 순교자들을 현양 하여 신앙의 모범을 제시함을 뜻하며, 순교자들의 행적과 신앙을 조사, 연구하며, 교육 및 성지개발 등의 활동을 뜻함	순교자	순교자 발표 보고서, 유해 안치식 관련 박물류 등 포도청 옥사, 순교 학술대회 등 순교자 보도자료, 124위 복자 보도자료 등 면형강학회 기념 문집, 성지순례 자료집 등	성지	솔뫼 성지, 오륜대성지 리플릿 등 도성지 관련 도서 등 성지 관련 보고서 성지 관련 유물	103위 성화 124위 복자화

구분지	기록군 (Group)	설명	기록물계열(Series)	기록물철(File)
주제	역사	역사는 본 수도회의 역사와 보편교회의 교회사, 민간기록물인 한국역사 또한 포함.	수도회 역사	수련학, 은사론, 완덕총론 등 수련교재
				통경기구, 신공절요 등 기도서
				예전, 수도서원 예식서 등 전례(예식)서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역대 보도자료
				1958년 서원 반지, 서원 화관 등
				성헌, 회칙, 회헌 등
			교회사	1984년 종신 서원 초대장 등
				한국천주교창설200주년 도록, 기념품 등 관련 기록
				김대건신부순교150주년 기념도서, 보도자료 등 관련 기록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기념배지, 보도자료, 예식서 등 관련 기록
				1984 시성식 입장권, 예식서, 성물, 보도자료, 포스터 등 관련 기록
				2014 시복식 예식서, 보도자료, 포스터 등 관련 기록

구분지	기록군 (Group)	설명	기록물계열(Series)	기록물철(File)
주제	강의	양성과는 별도의 수업이며, 강의 및 강의 자료까지 포함	심포지엄	심포지엄 자료집, 일정표, 기념품 등
			특강	특강 강의록 등
	인물 (개인)	창설자와 공동창설자 / 본 수도회 소속 회원이 직접 생산한 기록이 아닌, 관련 주제로 한 다른 출처의 기록.	창설자와 공동창설자 주제	본 수도회 회원 작성 연구논문, 학술지 등
				1968년 첫서원 강론집, 1958년 묵상집 등
				영혼의 빛(창설자 강론 모음집), 무아의 향기 등 창설자 관련 도서
				마ppelin 어록집
				창설자께 드리는 효도 편지 213편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소속 회원 주제
	건물	성당, 수도원 건물, 수도원 부속 건물 등을 모두 포함.	본원 성당	본원 성당 제단, 제의실 등
			유해 경당	제대 등
의복	의복	본 수도회의 수도복과, 전례를 위한 복장으로 구분하며, 본 수도회에서만 착용.	수도복	역대 수도복, 벨륨, 빨라움 등
				서원 복장, 서원 망토, 화관 등
				대례복, 족두리, 댕기 등

구분지	기록군 (Group)	설명	기록물계열(Series)	기록물철(File)
주제	성물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신성하고 거룩한 제물, 미사 제구들이 속함.	제구	본원 사용 십자가, 십자가의 길 등
				성모상, 성요셉, 성인성녀상 등
				향합, 향로, 성수채, 점등기 등

〈표 20〉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 정리체계 개선안

5.2 개선 방안

본 수도회 분류표는 기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한 주제 분류로 단순한 기록의 서가 배치를 위한 열거식 분류로 기록의 출처와 원질서가 반영되지 않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의 생산맥락과 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정리체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정리체계 개선안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향후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의 정리와 기술을 위한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리체계 개선안을 기반으로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의 기술(archival description)이 이루어져야 한다. 보존기록의 기술은 “기록을 위한 검색 도구나 기타 접근도구를 생산하는 과정 혹은 그 결과물”(한국기록학회, 2008)로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정리 작업이 이루어진 후 수행하게 되며, 보존기록의 맥락과 내용을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리체계 개선안은 집합적 기술이 가능하도록 기록물군(Group), 기록물계열(Series), 기록물철(File)로 구조화하였다. 기록의 집합적 기술은 “나무보다 먼저 숲을 보여준다”라는 비유(한국기록학회, 2018)로 주로 설명한다. 정리체계 개선안의 기록물군은 기술을 위한 토대로 보존기록의 맥락과 수녀회의 업무 및 관련된 조직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향후 보존기록 기술을 위한 국제표준인 ISAD(G)(General International Standard Archival Description) 등을 적용하여 기술항목의 배경영역, 맥락영역 등을 보완한다면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찾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보존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검색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거제어(authority control)가 제공되어야 한다. 전거제어는 접근점으로 선정된 인명, 주제명, 사건명 등에 대한 표현을 수집하여 각각의 대표 표현(우선어)을 정하고, 다양한 이형 표현(비 우선어)들과 연결시키는 방법을 통해 이용자가 어떤 표현으로 접근을 해도 해당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과정(한국기록학회, 2008, p.194)이다. 전거제어를 통해서 동일한 기록을 나타내는 다양한 이형 표현의 연계와, 단체나 조직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 전후 명칭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이용자의 신청서 내

용 분석 결과, 기관, 단체, 활동(업무)에 대한 다양한 동의어가 발견되었으며 전거통제의 필요성을 파악하였으나, 전거제어까지 진행하지 못하였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 데이터로 하여 효율적인 검색을 위한 전거제어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VI. 결론

가톨릭 기록물은 민간기록물로써, 공공기록물처럼 분류체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한국 가톨릭교회 안에서는 각 교구별, 수도회별로 분류체계가 통합되어 있지 않고, 각 기관별로 기록물을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또한 아직까지 체계적인 기록관리는 시작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관된 정리 기준 없이 주제별, 유형별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존기록들을 정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의 특성 및 구조를 반영하고 체계적인 정리와 이용자의 기록 검색을 지원할 수 있는 정리체계 개선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한국순교복자수녀회는 1946년에 창설된 수도회로써, 그 동안 많은 기록물을 생산 및 수집해오고 있었다. 이에 한국순교복자수녀회가 소장하고 있는 기록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용자의 검색 요구를 고려하여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검색할 수 있는 정리체계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가톨릭교회 기록물의 특성을 조사하고, 가톨릭 기록 분류 기준들을 도출하였다. 한국 가톨릭 기록물 관련 법규, 지침 및 규정인 한국천주교에서 작성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문서고 운영 규정〉(2019) 〈한국천주교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침〉(2009)과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2017)〉을 통해서 가톨릭교회의 기록물의 특성과 관리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보존기록 정리를 위한 분류체계의 기능, 조직, 주제의 3가지 분류기준을 도출하였다.

둘째,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의 관리 현황과 수녀회의 업무 조직을 조사, 분석하여 기록물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소장기록의 출처, 구조(집합체), 형태, 내용, 다른 기록과의 관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셋째,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이용자 기록 검색 요구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자료 대출 허가 신청서’ 141건의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의 신청서를 본 수도회의 회원 6명이 참여하여 기록물을 접근하고 검색할 수 있는 키워드를 부여하고, 이를 기반으로

분류 및 범주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1차 범주화 결과 개념어들을 유사한 내용으로 묶어 하위범주를 구성한 후에 상위의 범주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25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25개의 범주를 다시 3개의 구분지(기능, 조직, 주제)와 기록물군(Group), 기록물계열(Series)로 기록물파일(File)에 따라 구조화하였다.

넷째, 문헌연구와 내용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도출된 정리체계와 기존 분류표와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기존 분류표와 도출된 정리체계와의 구조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항목을 찾아내어 이를 토대로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정리체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제안된 수녀회 정리체계는 기능에서 8개의 범주, 출처에서 7개의 범주, 주제에서 7개의 범주로 구성되었으며, 각 기록물군 아래 하위 기록물계열과 기록물 파일로 구성된다. 기능은 본 수녀원(총원)에서 하고 있는 주요 업무와 업무에 관련된 결과로 생산되는 기록물들을 의미하며, 조직은 총원(본원)을 제외한 본 수도의 주요 기관, 또는 조직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록물들로, 주로 기관 생산자 중심의 분류기준이다. 주제는 조직의 행위나 출처가 명확하지 않고, 기록물의 주요한 내용에 따른 분류기준을 뜻하며, 공통적으로 각 기록물들은 유형과 시대구분으로 편철한다. 새롭게 도출된 기록물군은 5개이며, 기존 분류표와 비교하여 새로운 분류체계의 도출, 정리를 위한 분류체계 변경, 분류수준의 변경, 중복된 분류의 재분류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 참여자 6명이 키워드 추출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본 수녀회 회원이므로 일반이용자들의 전적인 이용 요구분석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기록 정리 목적은,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정리, 관리하고, 이용자에게는 검색 가이드로써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 보존기록 정리체계 개선안이 이용자들에게 기록의 생산맥락과 의미를 이해하여 기록물을 발견(findable) 할 수 있는 검색 가이드로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수도회의 보존기록은 “일정 기간의 활동의 결과가 점차적으로 쌓여가면서 만들어지는 것”(Miller, 2002, p.12)이며, 특정 목적을 위해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본 수도회만의 특성인 카리스마와 역사적 가치를 증거하기 위해 보존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보존기록이라는 수도회의

가치를 지닌 기록물을 정리하고, 이용자들이 접근, 검색할 수 있도록 정리체계 개선안을 제안하였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순교복자수녀회의 보존기록 정리체계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이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보존기록의 기술과 전거제어를 통해 보존기록의 효율적인 정리와 이용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우일. (2011). 『교회법전』.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권미정. (2015). 『개신교 기록관 운영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 전공.
- 김구. (2004). 『사회과학 연구조사방법론 :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접근』. 서울: 비앤эм북스.
- 김선미. (2003). 『가톨릭교회기록물 관리에 관한 연구-교구 기록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김성태. (2018). 『한국 천주교 자료의 분류체계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대학원 사학과 한국사전공.
- 김유선. (2018). 『함평사건희생자유족회의 소장 기록물 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
- 김희중. (1987). 이탈리아 교회 문서고에 관하여-밀라노 교구청 문서고 -. 『교회와 역사』, 140-141. P.15-17.
- 경민정. (2018). 『한국 천주교 역사기록물의 정리와 기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나옥빈. (2020). 『H대학교 설립자 기록물의 분류와 활용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 박정옥. (2013).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분류표 개발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협동과정석사 학위논문.
- 방소운. (2012). 『가톨릭교회 기록관 기록정보서비스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 설문원. (2015). 기록분류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과 과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2(3): p.203-232.
- .(2012). 기록의 발견과 이해를 위한 온라인 검색가이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1): p.53-87.

- 신지철. (2018). 『한국 천주교 “교구 박물관“ 설립의 유용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그리스도교미술학과 교회문화재전공.
- 오정희, 정연경. (2018). 독립 운동 컬렉션 분류 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p.99–124.
- 윤혜선. (2019).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기록물의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 이보나. (2020). 『한국가톨릭교회 역사기록물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이은숙. (2018). 『이산가족 찾기 기록 검색을 위한 패싯 기반 온톨로지 모델 설계 및 평가』. 석사학위논문. 한성대학교 대학원.
- 이진렬, 김정분, 나창호, 김명훈, 김계수. (2010). 『2010 기록물 분류와 평가의 이해』. 대전: 국가기록원 기록관리교육과.
- 이젬마. (2011). 『기록분류 · 조직』. 대전: 국가기록원.
- 외교부. (2021). 『교황청 개황』. 서울: 외교부.
- 정경아. (2005). 『대한성공회 기록관리 현황과 아카이브 설치의 방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대학원.
- 정진임. (2008). 『매뉴스크립트 분류체계 개발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조광. (1987). 현대 교회 문서 정리와 역사의식. 『교회와 역사』. 140–141. P.8–10.
- 주교회의 문화위원회. (2009). 『한국천주교 문화유산 보존관리지침』. 서울: 한국천주교주교회의.
- 하종희. (2001). 천주교 대전교구의 기록관리-개선안 및 기록물 정리 방안-. 『기록학연구』, 4: p.63–91.
- 한국국가기록연구원. (2004). 『가톨릭교회의 교구기록관리 방안』. 서울: 새한문화사.
- 한국기록학회.(역).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주)역사비평사.
- 한국기록관리학회.(편). (2018).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재』. 서울: (주)조은글터.

- 한국교회사연구소. (2016). 『‘한국 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조사』.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 . (2018). 『천주교 서울대교구 소장 사료목록 조사 연구용역』.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편). (2013). 『한국 천주교회 총람(2004~2012년)』.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한국가톨릭대사전 편찬위원회.(편). (2005). 『한국가톨릭대사전』. 서울: 한국교회사연구소.
- Fredric. M. Miller. (2002). 『아카이브와 매뉴스크립트의 정리와 기술』. 서울: 진리탐구.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8). 『2018년 사료 목록 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 자료집』.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 (2020). 『2020년 한국천주교 사료 목록화 사업 학술 연구 용역 최종 보고 자료집』.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7). 교회 문서고의 사목적 기능(The Pastoral Function of Church Archives).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2(3): p. 143–173.
- . (2002). 교회 문화재의 목록과 도록: 필요하고도 시급 한 과제(Inventory and Catalogue of the Cultural Heritage of the Church: a Necessary and Urgent Task).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7(2): p. 251–293.
- . (2003). 교회 박물관의 사목적 기능(The Pastoral Function of Ecclesiastical Museums). 『가톨릭교회의 가르침』. 8(2): p. 187–260.
- 한아랑. (2016). 카톨릭 역사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P.359–384.
- 한지훈. (2017). 『천주교 대구대교구청 박물자료 관리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허은정. (2007). 『교회의 체계적인 기록관리를 위한 기록관 설립 및 운영방안: N교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

협동과정 기록관리학전공.

2. 웹 사이트

한국천주교주교회의·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2.04.12.)

URL: <https://cbck.or.kr/Committees/201005666>

가톨릭신문, "2020년 1월12일 [특별기고] 「한국 천주교 문화유산 보존

관리 지침」 발간 10년의 회고", (2022.04.15.)

URL:

https://m.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326215

한국순교복자수녀회, (2022.05.10.) URL: <http://sbkm.kr>

<부 록>

- 기존 분류표와 정리를 위한 분류체계 개선안과의 전체 매핑 결과

기존의 분류표	현재 개선안	비고
본회 간행물 > 옥잡화		- 재분류
본회 간행물 > 순교의 맥	출판 > 순교의 맥, 옥잡화	- 분류체계 변경 (본회간행물→출판)
본회 간행물 > 본회 출판	출판 > 총서 기념화보 리플릿 논문	- 분류체계 변경 (본회간행물→출판)
창설자 > 창설신부님 > 복식, 제구, 영혼의 빛 등	(조직) 창설자와 공동창설자 > 방유룡 > 일기, 서신, 복식 등 (주제) 인물(개인) > 창설자와 공동창설자 주제 > 영혼의 빛 > 본 수도회 회원 작성 연구논문 등	- 재분류 - 분류체계 변경 (창설자→창설자와 공동창설자) (창설자→인물 (개인))
창설자 > 동창사제	사제단 > 동창사제	분류체계 변경 (창설자→사제)
창설자 > 공동창설자 마뗄 공동창설자 뼈로마뗄	(조직) 창설자와 공동창설자 > 마뗄 (조직) 창설자와 공동창설자 > 뼈로마뗄 (주제) 인물(개인) > 창설자와 공동창설자 주제 > 마뗄	- 재분류 - 분류수준 변경 (중분류→세분류)

기존의 분류표	현재 개선안	비고
창설자 > 제의	(조직) 창설자와 공동창설자 > 방유룡 > 제의	분류수준 변경 (중부류→세분류)
본회 역사 > 역대 수도복	의복 > 수도복 > 역대수도복	- 분류체계 변경 (본회역사→의복)
	의복 > 대례복 > 대례복, 족두리 등	- 분류수준 변경 (중분류→세분류)
본회 역사 > 역대 회현 역대 기도서 역대 수련교재 역대 전례(예식서)	역사 > 수도회 역사 > 회현 기도서 수련교재 전례(예식서)	- 분류체계 변경 (본회역사→역사) - 분류수준 변경 (중분류→세분류)
사도직> 자치분원 파견분원 철수분원	관구 > 대전관구 > 분원 수원관구 > 분원 미주 준관구 > 분원 총원소속 사도직 > 종신서원예정반 > 자료실 > 도서실 > 특별회원 > 북방선교 > 전례음악실 > 복자장학회	- 분류체계 변경 (사도직→관구) (사도직→총원소속 사도직) (사도직→총원소속 수도원) - 분류수준 변경 (중분류→세분류)

기존의 분류표	현재 개선안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아공동체 › 무아방유룡영성연구소 › 면형사제기도모임 › 마뗄암재단 <p>총원소속수도원 > 대월수도원</p>	
(서류중심) 사도직 > 선교지 > 관련서류 > 분원약사, 월계표 등	<p>관구 > 수원관구 > 선교지</p> <p>관구 > 대전관구 > 선교지</p> <p>총원 소속 수도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마 성 정하상 바오로 수도원 › 르망 성녀 소화 데레사 수도원 › 다카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수도원 	- 분류체계 변경 (사도직→관구) (사도직→총원 소속 수도원)
(박물류 중심) 선교 > 아시아지역 미주지역 유럽지역 아프리카지역	<p>선교 > 아시아지역 선교활동</p> <p>미주지역 선교활동</p> <p>유럽지역 선교활동</p> <p>아프리카지역 선교활동</p>	변동 없음
본회 행사 > 창립 50주년 행사 > 창립 60주년 행사 > 창립 70주년 행사	<p>행사 > 창립 50주년 행사</p> <p> > 창립 60주년 행사</p> <p> > 창립 70주년 행사</p>	대분류명 변경

기존의 분류표	현재 개선안	비고
본회 행사 > 기타 행사	행사 > 환영식 > 퇴임식 > 축성식 > 축복식	- 대분류명 변경 - 분류 수준 변경 (세분류→중분류)
가족수도회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 재속복자회	가족수도회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재속복자회	변동 없음
역사 > 교회관련 역사 > 44회 세계 성체 대회 > 한국천주교창설 200주년 >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 1984년 시성식 > 2014년 시복식 > 2000~2003년 시노드	역사 > 교회사 > 44회 세계 성체 대회 > 한국천주교창설 200주년 >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 조선교구 설정 150주년 > 1984년 시성식 > 2014년 시복식 > 2000~2003년 시노드 > 2021년 초남이 성지 유해 안치식	- 중분류명 변경 (교회관련 역사 →교회사)
역사 > 교회관련 역사 > 순교자 발표 보고서 등 > 순교자 보도자료 등	순교 > 순교자 > 순교자 발표 보고서 등 > 순교 학술대회 등 > 순교자 보도자료 등	분류체계 변경 (역사→순교)

기존의 분류표	현재 개선안	비고
역사 > 교회관련 역사 > 성화 관련	순교 > 성화 > 103위 성화 > 124위 복자화	- 분류체계 변경 (역사→순교)
역사 > 교회관련 역사 > 성지 관련 보고서 > 유물 등	순교 > 성지 > 성지 리플릿 등 > 성지 관련 도서 > 성지 관련 보고서 > 성지 관련 유물	분류체계 변경 (역사→순교)
역사 > 본회 역사 관련 > 상주사제	사제단 > 상주사제	- 분류체계 변경 (역사→사제단) - 분류수준 변경 (세분류→중분류)
역사 > 본회 역사 관련 > 자치분원 관련	관구 > 대전관구 수원관구 미주 준관구	분류체계 변경 (역사→관구)
역사 > 본회 역사 관련 > 창립기념 행사	역사 > 수도회 역사 > 창립기념	중분류명 변경 (본회 역사 관련 →수도회 역사)
역사 > 본회 역사 관련 > 종신서원 등 서원관련	역사 > 수도회 역사 > 서원 화관, 서원반지 등	중분류명 변경 (본회 역사 관련 →수도회 역사)

기존의 분류표	현재 개선안	비고
역사 > 본회 역사 관련 > 본회 관련 신문 기사 스크랩	역사 > 수도회 역사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역대 보도자료	- 중분류명 변경 (본회 역사 관련 →수도회 역사)
총회 > 총회문서	총회 > 총평의회 > 총회문서	분류수준 변경 (중분류→세분류)
	총회 > 특별총회	
회원 > 선종회원 유품 > 생존회원 기증품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소속 회원 > 선종회원 유품 > 생존회원 기증품	- 재분류 - 분류체계 변경 (회원→한국순교복 자수녀회 소속 회원) (회원→인물)
	인물(개인)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소속 회원주제	
회원 > 회원명부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소속 회원 > 선종회원 > 명부 > 생존회원 > 명부	분류수준 변경 (중분류→세분류)
전례 > 전례용품	성물 > 제구	분류체계 변경 (전례→성물)
-	순교자 현양 > 순교극	새롭게 추가
-	강의 > 심포지엄 > 특강	새롭게 추가

기존의 분류표	현재 개선안	비고
-	피정 > 월말피정 > 연말피정 > 연중피정	새롭게 추가
-	전례 > 미사 > 예식	새롭게 추가
-	양성 > 양성프로그램 > 국제양성	새롭게 추가



ABSTRACT

A Study on the Improvement in Archival Arrangement System of the Sisters of the Blessed Korean Martyrs

Kim, Hyo-Jin

Major in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It has been more than 200 years since Catholicism became a precedent in Korea. In the meantime, the Korean Catholic Church has produced and preserved many records through 16 dioceses, multiple monasteries, and individual believers' religious activities. Among them, the records of monasteries are records that indicate the nature of each monasteries along with the life of the consecration, so they play a very important role not only in monasteries but also in church records.

The Sisters of the Blessed Korean Martyrs,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founded in Kaesong in 1946. Celebrating the 76th anniversary of its founding in 2022, the convent has produced and preserved records for years. However, the current classification system of the Sisters of the Blessed Korean Martyrs archives does not reflects the context and provenance, which is essential to records classification, making it difficult

for users to find and understand records. In the end, these problems made it impossible to properly utilize the value of the records.

The study aims to systematically organize the archives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and structure of the Sisters of the Blessed Korean Martyrs and improve the archival arrangement system so that users can discover records and understand the context of records. The existing classification criteria of the archives of the Sisters of the Blessed Korean Martyrs, such as subject, function, provenance, and media format, were not clear and mixed. In order to improve the arrangement system of the archives of the Sisters of the Blessed Korean Martyrs, this study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survey on the management and classification of archives and content analysis of applications for user data loan permission. Data analysis was carried out using a bottom-up and top-down approach. Through the top-down method, the regulations and guidelines of Catholic records were investigated to derive three categories of characteristics and classification criteria of Catholic records: function, organization, and subject. As a bottom-up method, six study participants, consisting of members of the monastery, analyzed 141 applications for "data loan permission", which are currently documented loan evidence documents of the Sisters of the Blessed Korean Martyrs.

As a result of content analysis, a total of 1,648 keywords were extracted, and a system of organizing file structures under a total of 22 archival groups (groups) and 68 archives (series) was derived through classification and categorization.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proposed arrangement system with the existing classification systems, it was modified and supplemented by deriving new classes, changing classes and hierarchical level (depth), and reclassifying the overlapping classifica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posed an arrangement system that can reflect the hierarchical and collective order of the archives of the Sisters of the Blessed Korean Martyrs. The proposed arrangement system attempted to facilitate access and use of archives in the Sisters of the Blessed Korean Martyrs, with respect to the provenance and original order. In the future, based on the arrangement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the archival description and authority control supporting access should be carried out.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preliminary data for developing finding aids which allow better access to the archives in the Sisters of the Blessed Korean Martyrs.



[Keywords] Religious records, Archives, Arrangement systems, monasteries, content analysis, search guide, classification